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3_02

ARS+CATI

제27차 ARS조사

제12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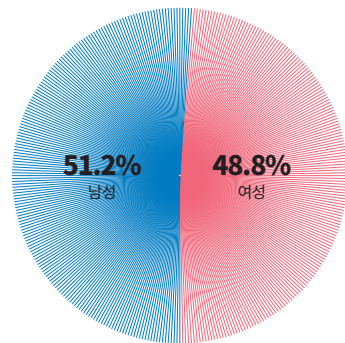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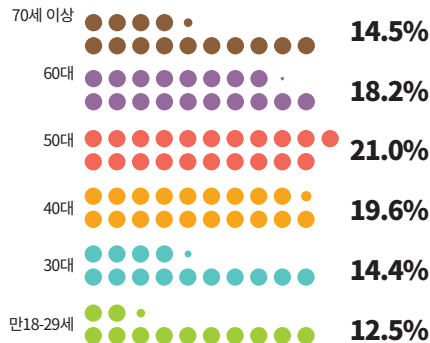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1% [총 통화시도 32,835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3일 ~ 3월 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2	100.0%	1.00
성별	남성	513	51.2	497	0.97
	여성	489	48.8	505	1.03
연령	만18~29세	125	12.5	166	1.33
	30대	144	14.4	151	1.05
	40대	196	19.6	183	0.93
	50대	210	21.0	195	0.93
	60대	182	18.2	169	0.93
	70세 이상	145	14.5	138	0.95
지역	서울	205	20.5	189	0.92
	인천·경기	308	30.7	319	1.04
	대전·세종·충청	111	11.1	105	0.95
	광주·전라	98	9.8	97	0.99
	대구·경북	97	9.7	98	1.01
	부산·울산·경남	145	14.5	150	1.03
	강원·제주	38	3.8	4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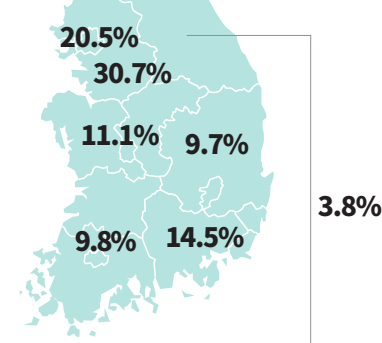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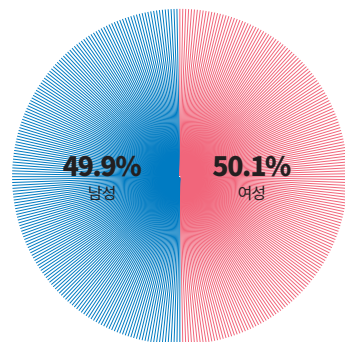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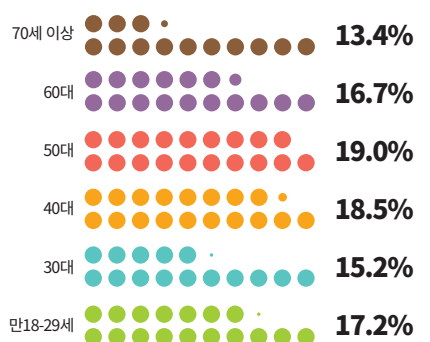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6% [총 통화시도 5,829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3일 ~ 3월 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8	100.0%	1.00
성별	남성	513	49.9	511	1.00
	여성	515	50.1	517	1.00
연령	만18~29세	177	17.2	171	0.97
	30대	156	15.2	155	0.99
	40대	190	18.5	189	0.99
	50대	195	19.0	199	1.02
	60대	172	16.7	172	1.00
	70세 이상	138	13.4	142	1.03
지역	서울	195	19.0	194	0.99
	인천·경기	326	31.7	328	1.01
	대전·세종·충청	115	11.2	109	0.95
	광주·전라	97	9.4	99	1.02
	대구·경북	105	10.2	100	0.95
	부산·울산·경남	151	14.7	153	1.01
	강원·제주	39	3.8	45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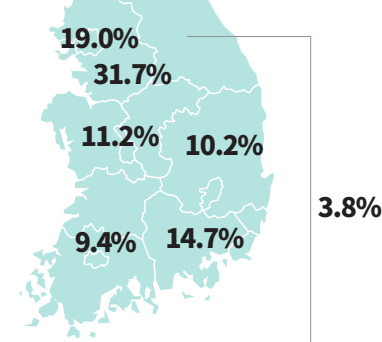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정치·사회
현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의 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총선 전망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개혁 방향

정순신 임명 강행

대통령의 책임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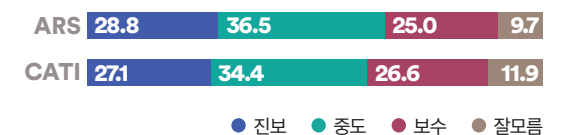
김기현 투기 의혹

대통령의 식민사관

윤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

한일 군사협력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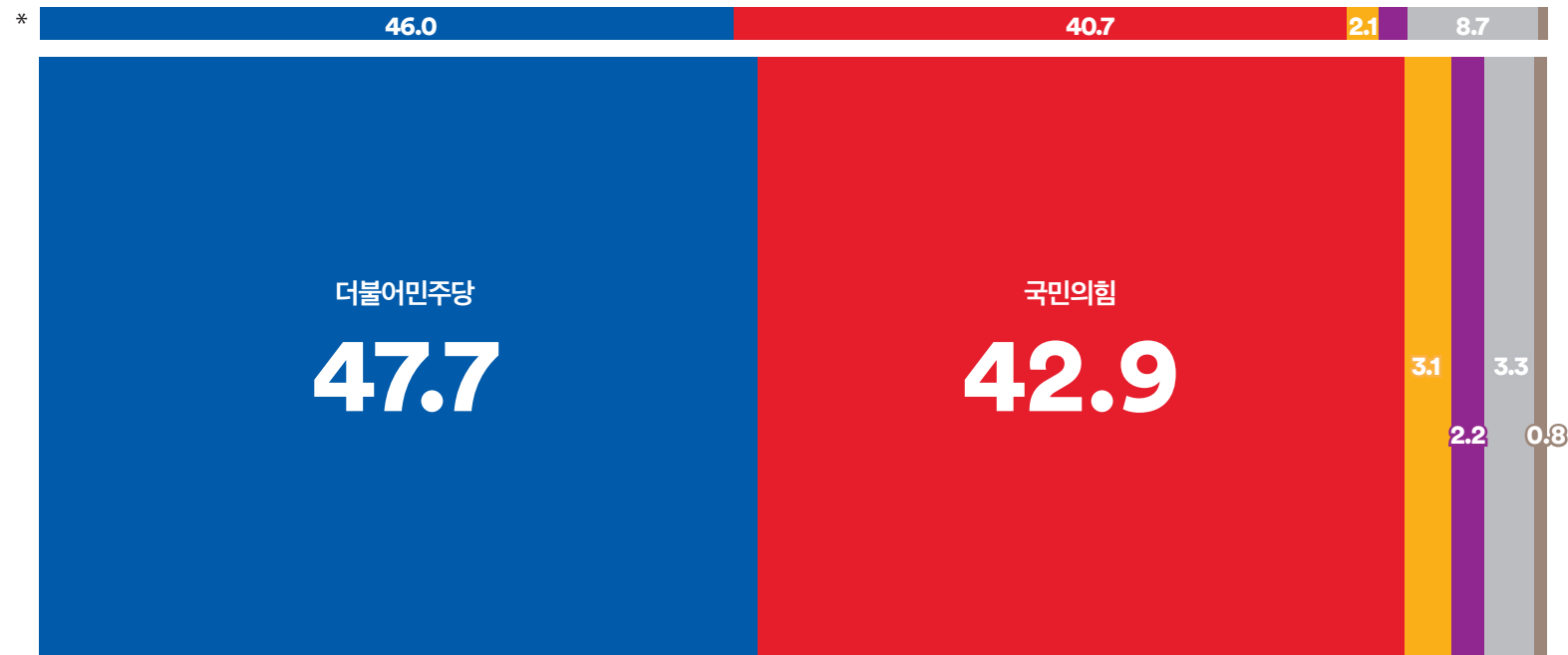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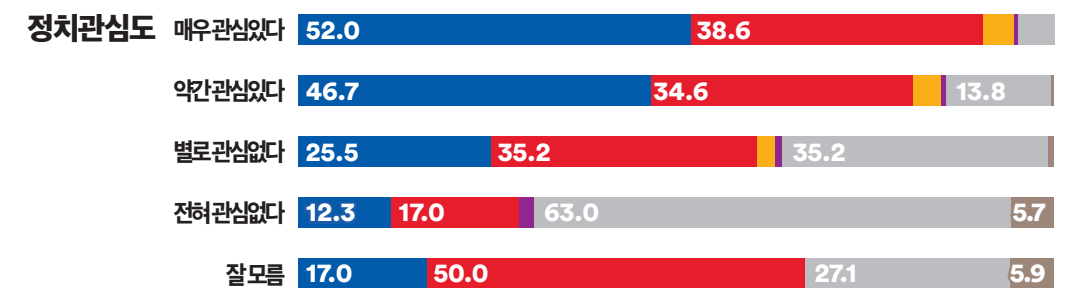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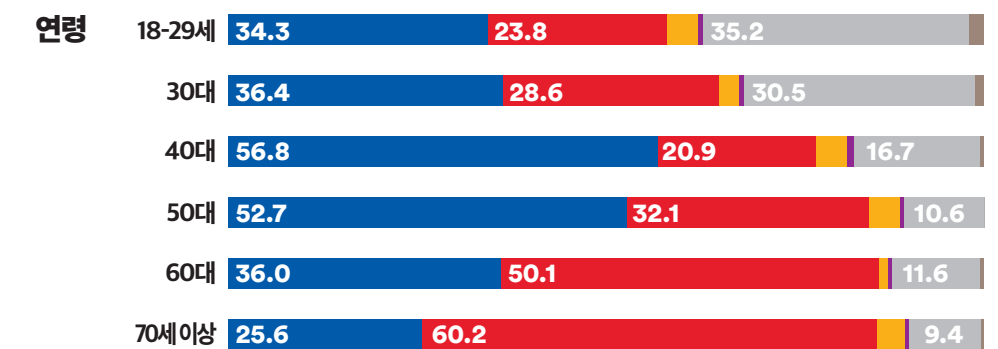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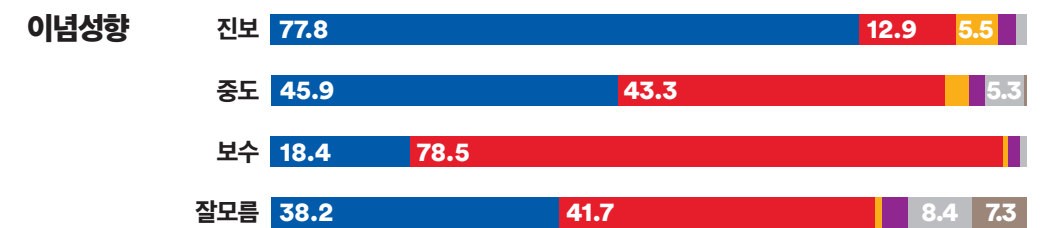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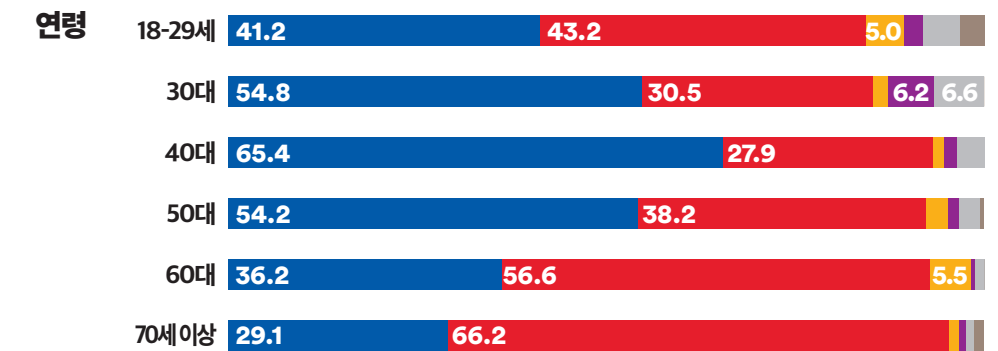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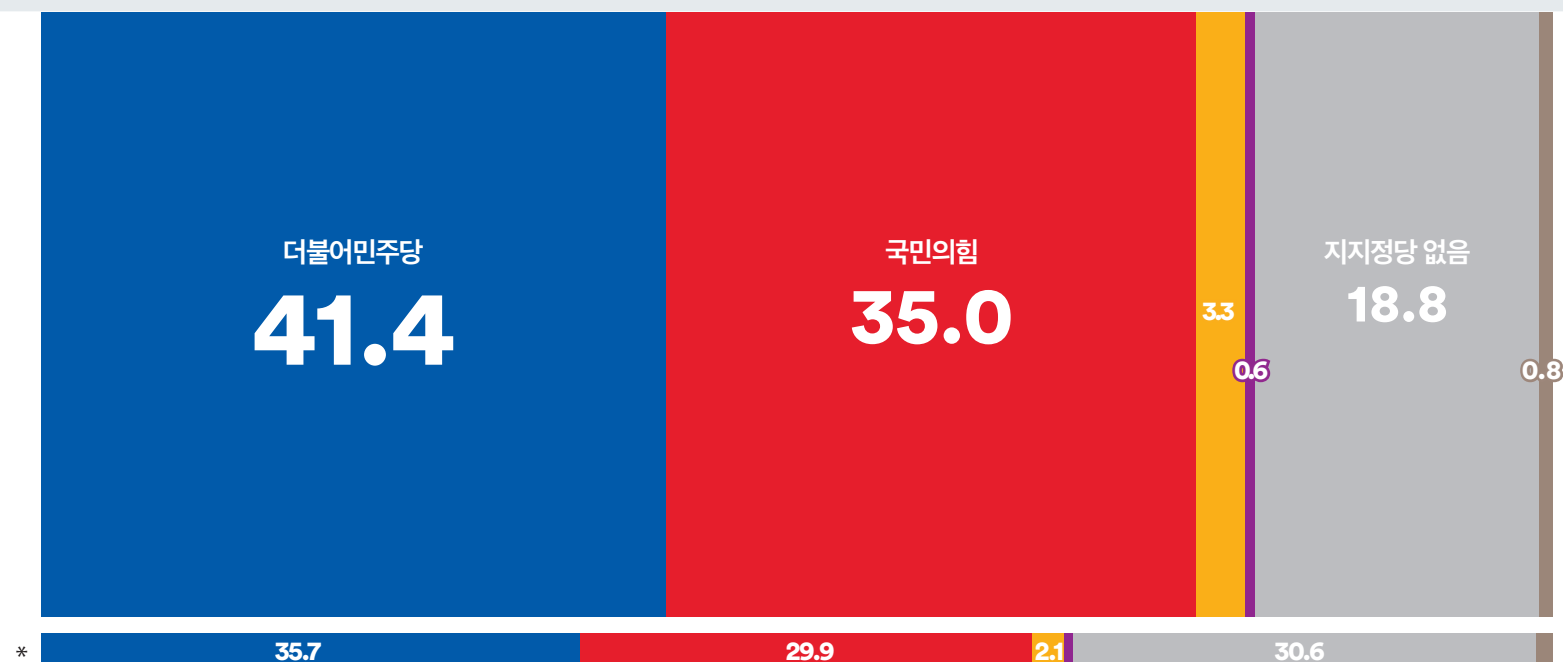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지난 ARS 조사 대비 재질문 포함 기준, 더불어민주당 2.2%p 상승, 국민의힘 0.4%p 하락
 지난 CATI 조사 대비 재질문 포함 기준, 더불어민주당 5.8%p, 국민의힘 8.3%p 상승.
 두 조사 모두 30~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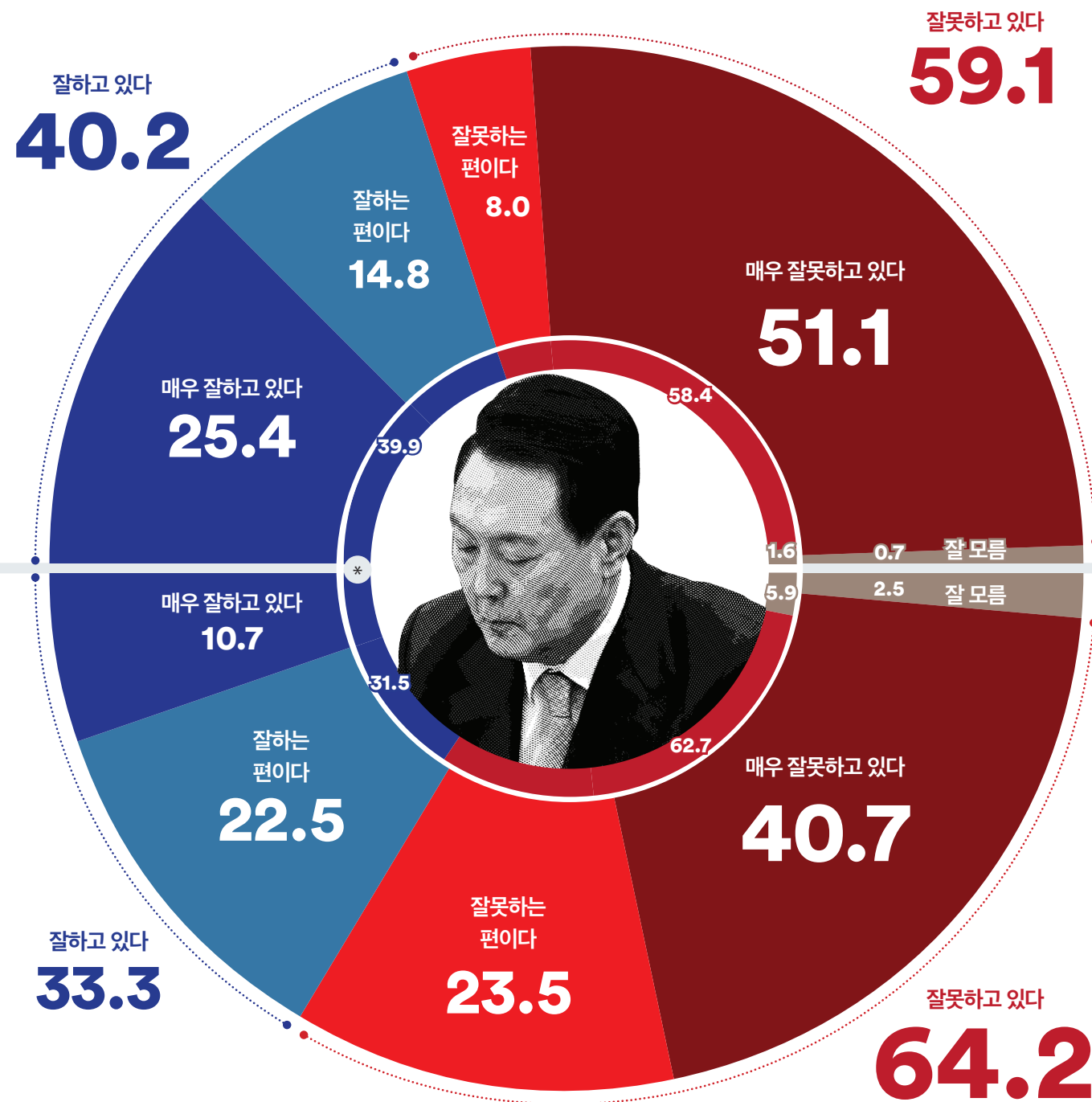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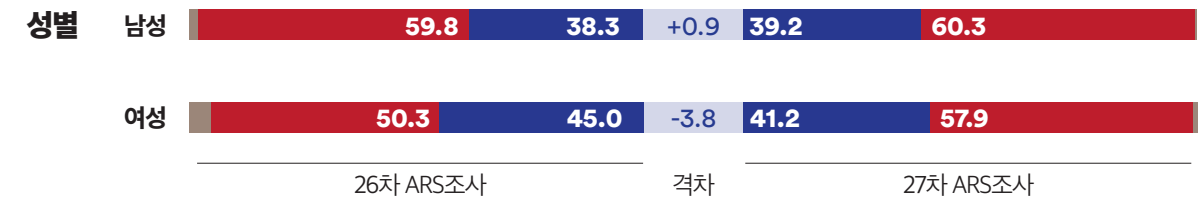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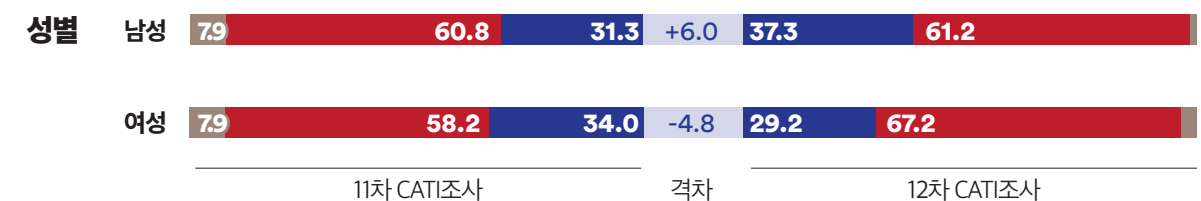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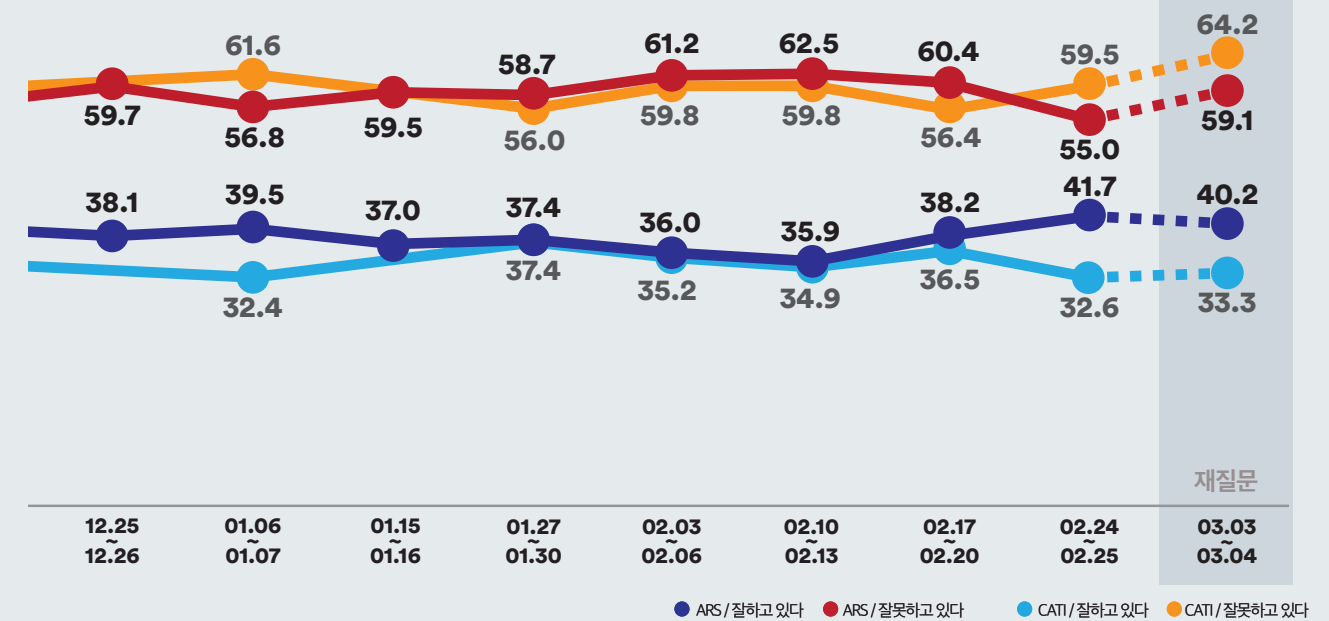


지난 ARS 조사 대비 재질문 포함 기준, 긍정평가 1.5%p하락, 부정평가 4.7%p 증가
 지난 CATI 조사 대비 재질문 포함 기준, 긍정평가 0.7%p, 부정평가 4.7%p 증가
 CATI조사는 긍부정 격차 30.9%p, ARS 조사는 18.9%p로 부정평가 우세

* 재질문 미포함 응답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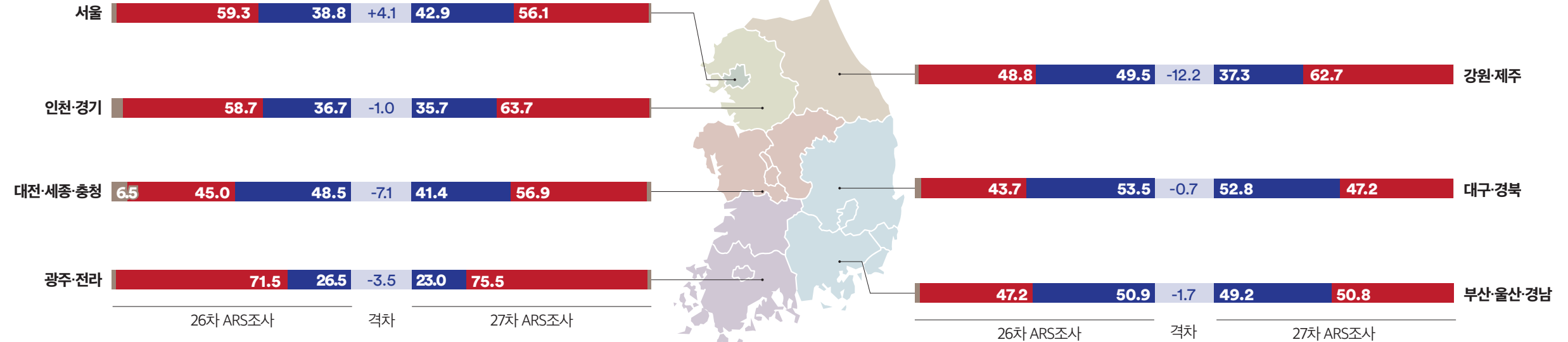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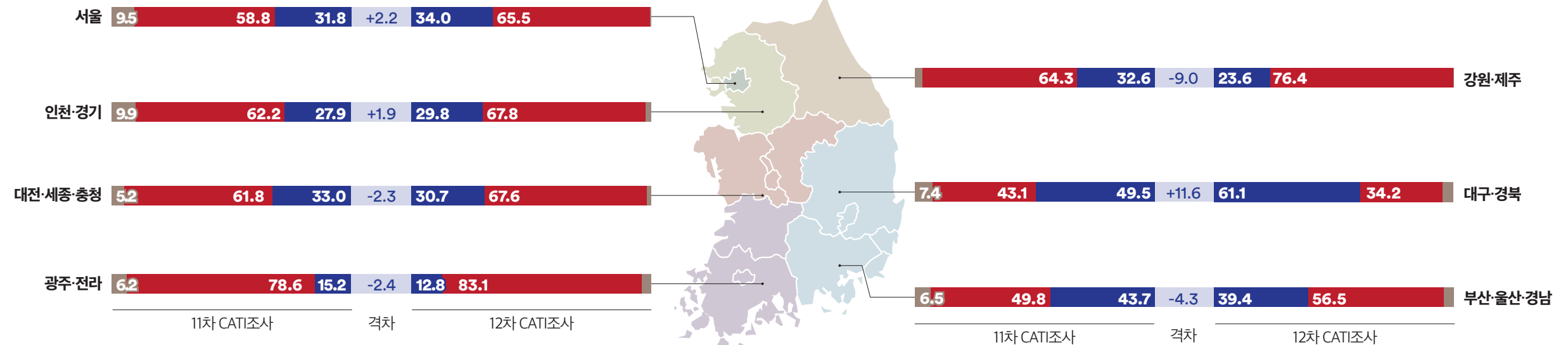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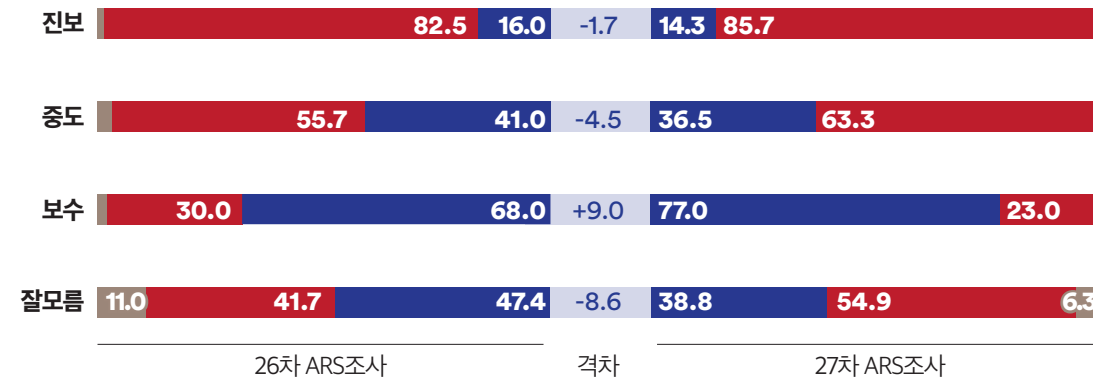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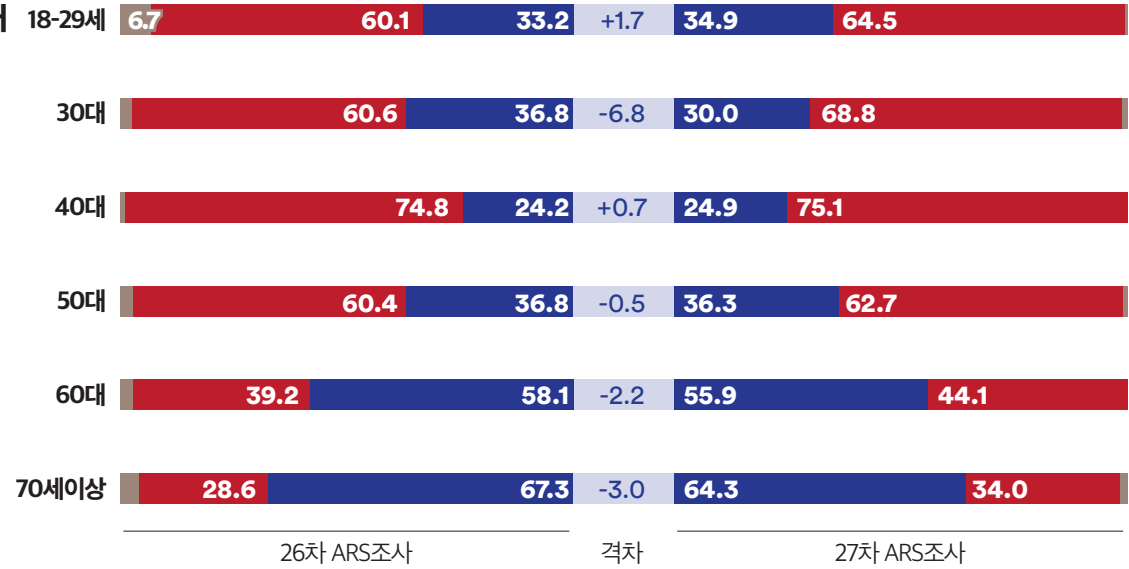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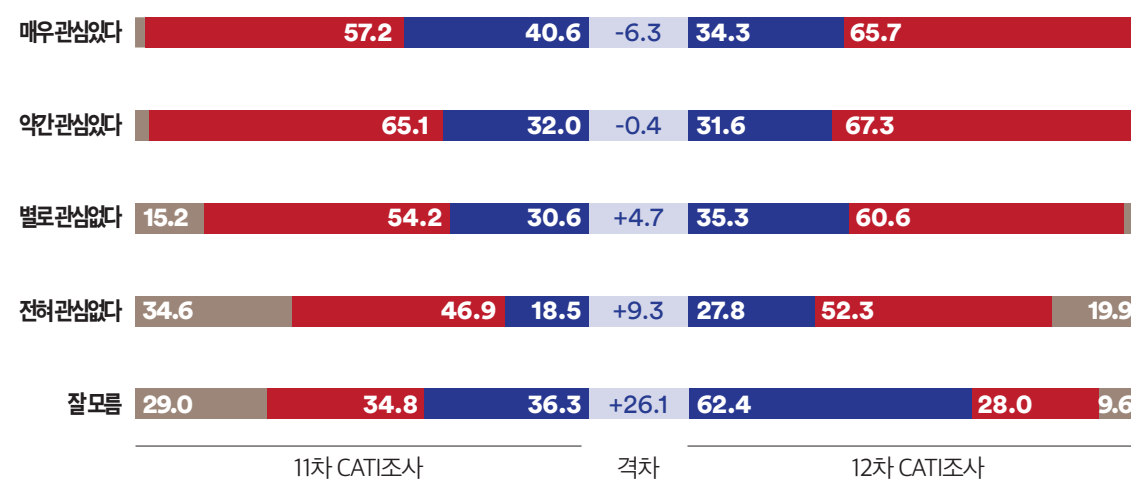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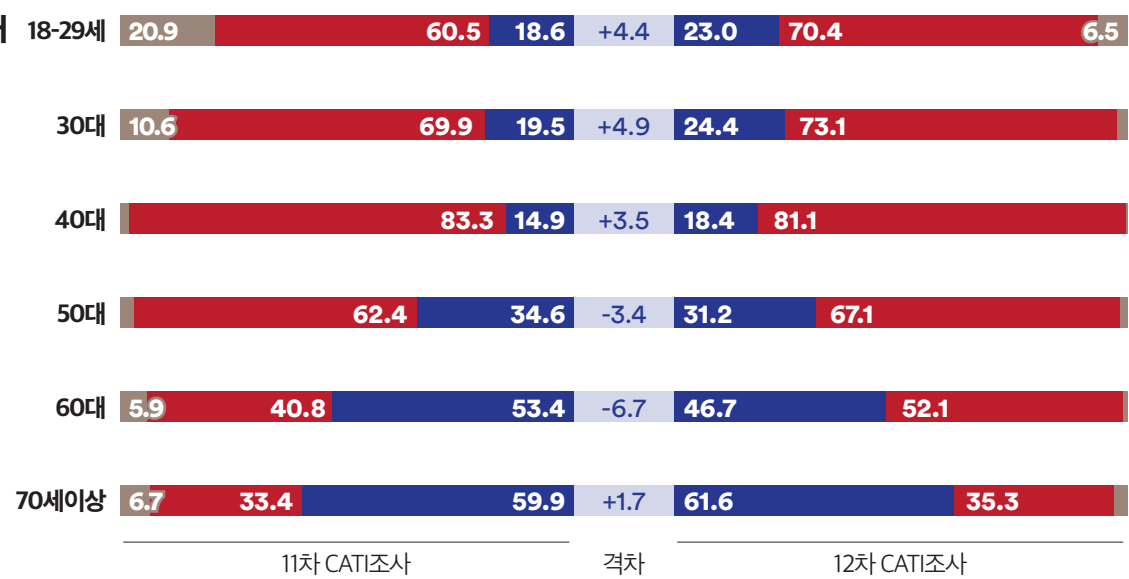


CATI

정치
관심도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더불어민주당 FOCUS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

현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의 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총선 전망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개혁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표결과정에서 이탈했다고 추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총선 전망을

ARS와 전화 면접조사로 동시에 묻고 그 응답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개혁과 갈등융합 두가지 중

어떠한 방향을 선택 해야하는지 전화 면접조사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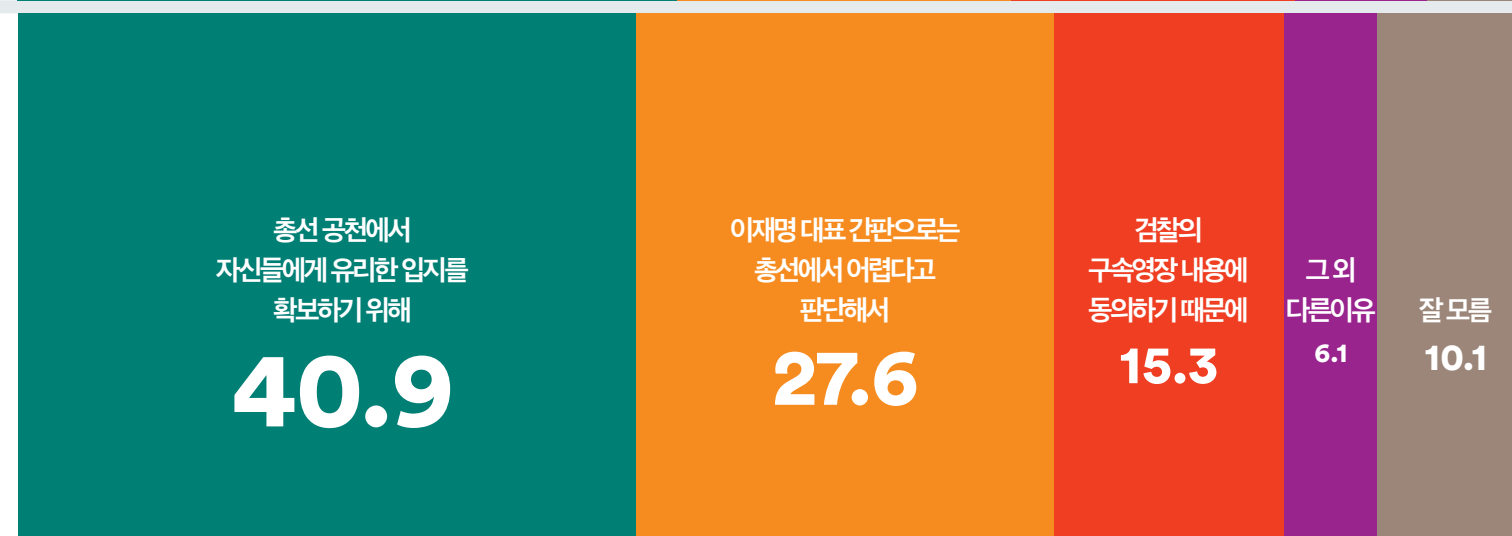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

Q.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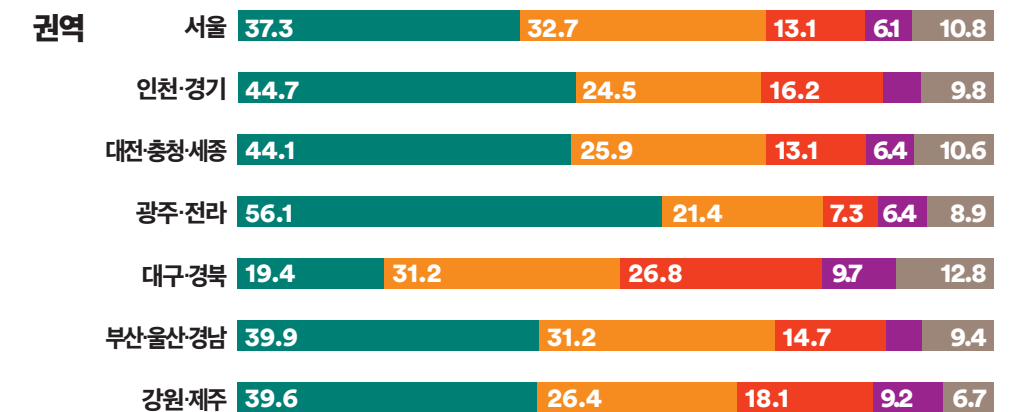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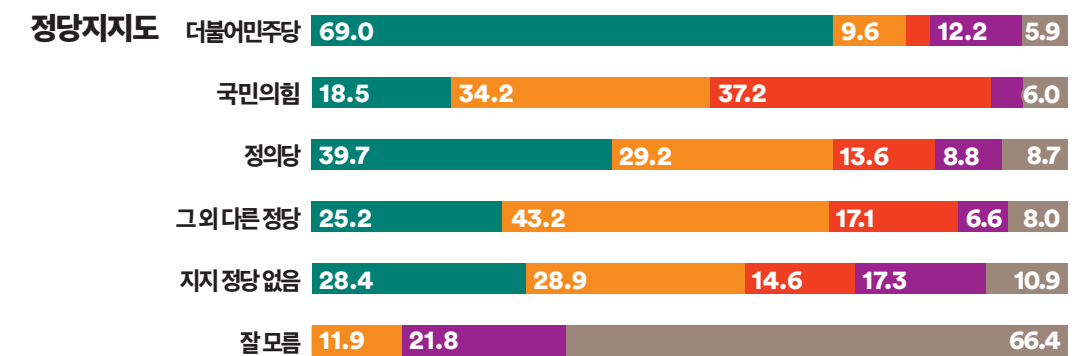
ARS



CATI



두 조사 모두 10명중 4명 이상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하기 위해'라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0명중 6명 이상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하기 위해'라고 응답 (CATI 64.1% / ARS 69.0%)
 ARS | 모든 권역에서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하기 위해'란 응답이 가장 많음
 CATI |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하기 위해'란 응답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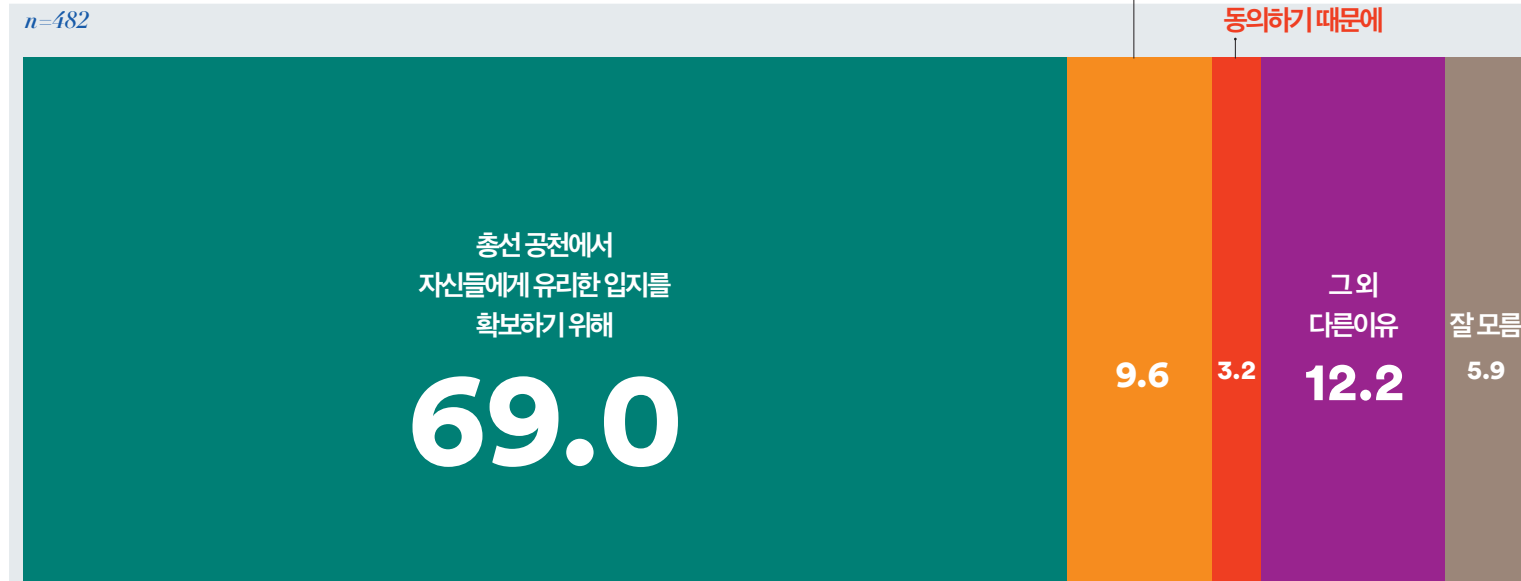
공천에서의 입지확보 때문에 |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총선승리가 어려워서 |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 그 외 다른이유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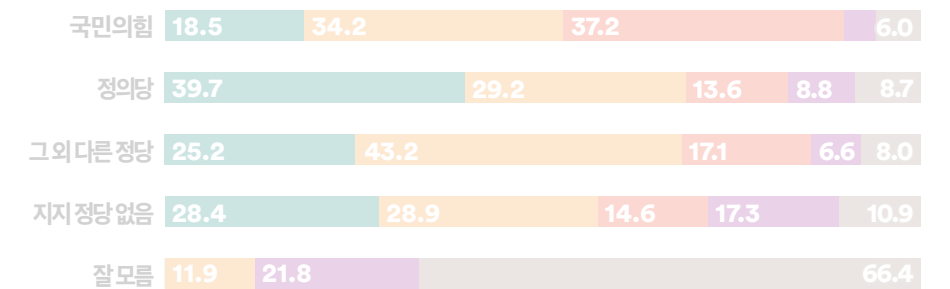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

Q.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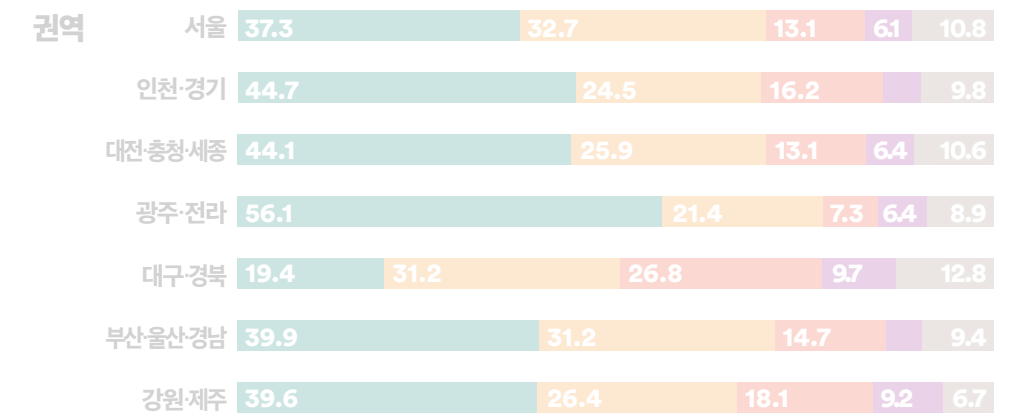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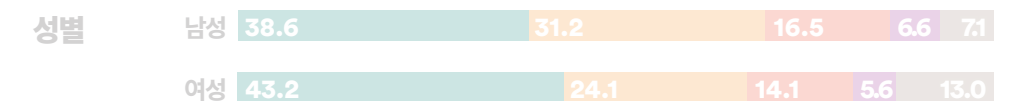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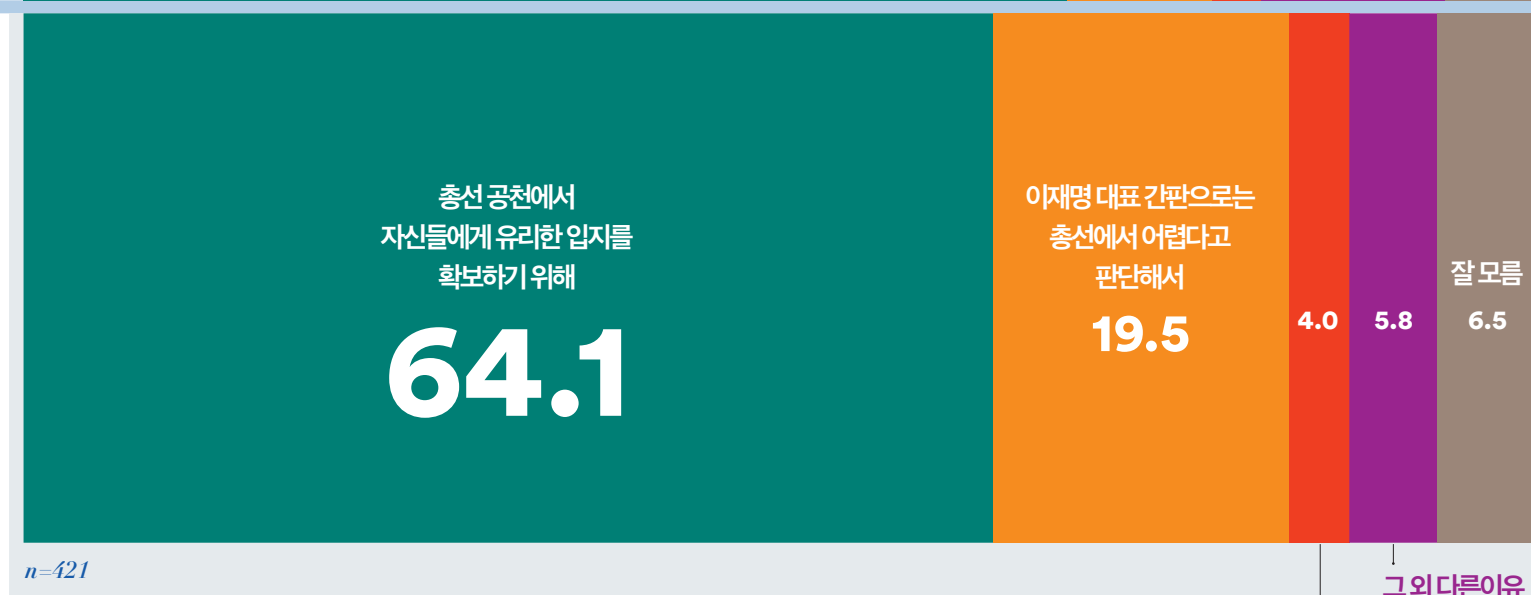
ARS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9.0 9.6 12.2 5.9



CATI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4.1 19.5 5.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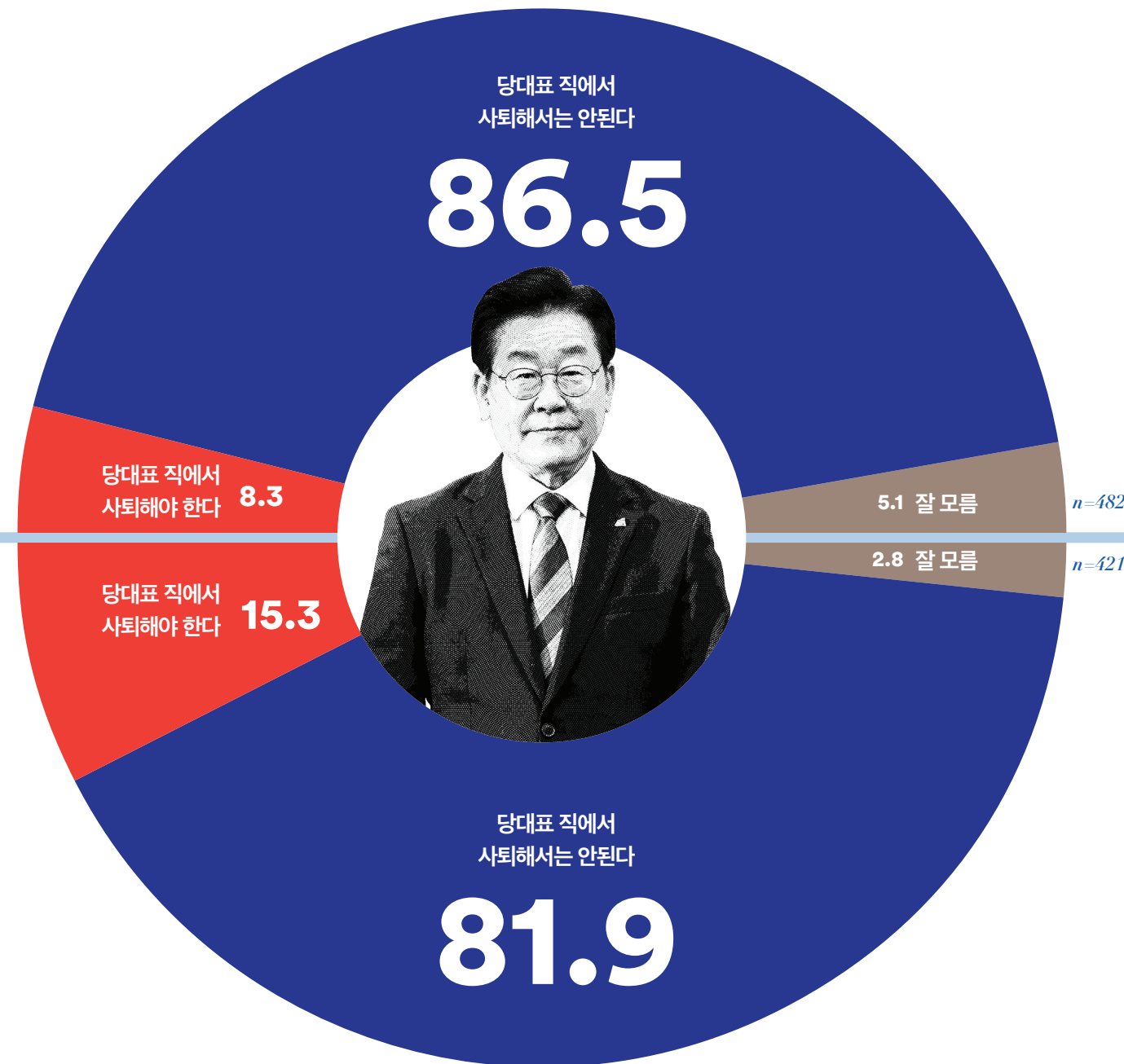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의 길

Q.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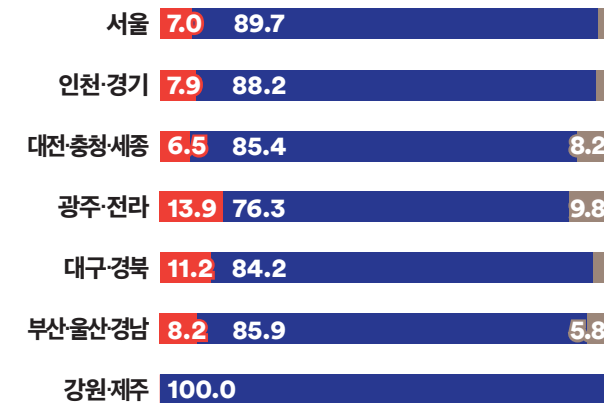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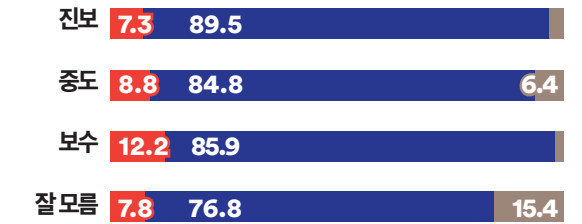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CATI n=421명 / ARS n=482명)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두 조사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퇴해선 안된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지표에서 '사퇴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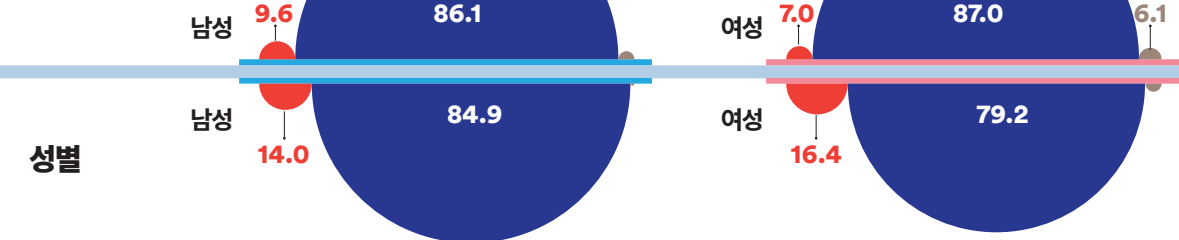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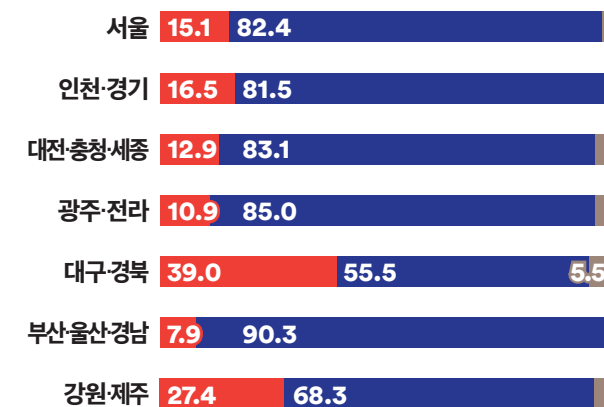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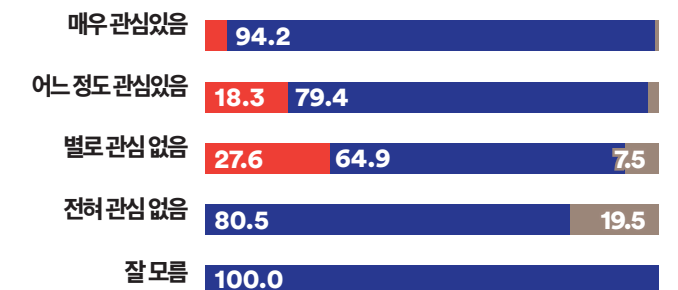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치관심도



사퇴해야 한다 (Should resign) | 사퇴하면 안된다 (Should not resign) | 모르겠다 (Don't know)



정치·사회 현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총선

Q. 이재명 대표 체제로 차기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결과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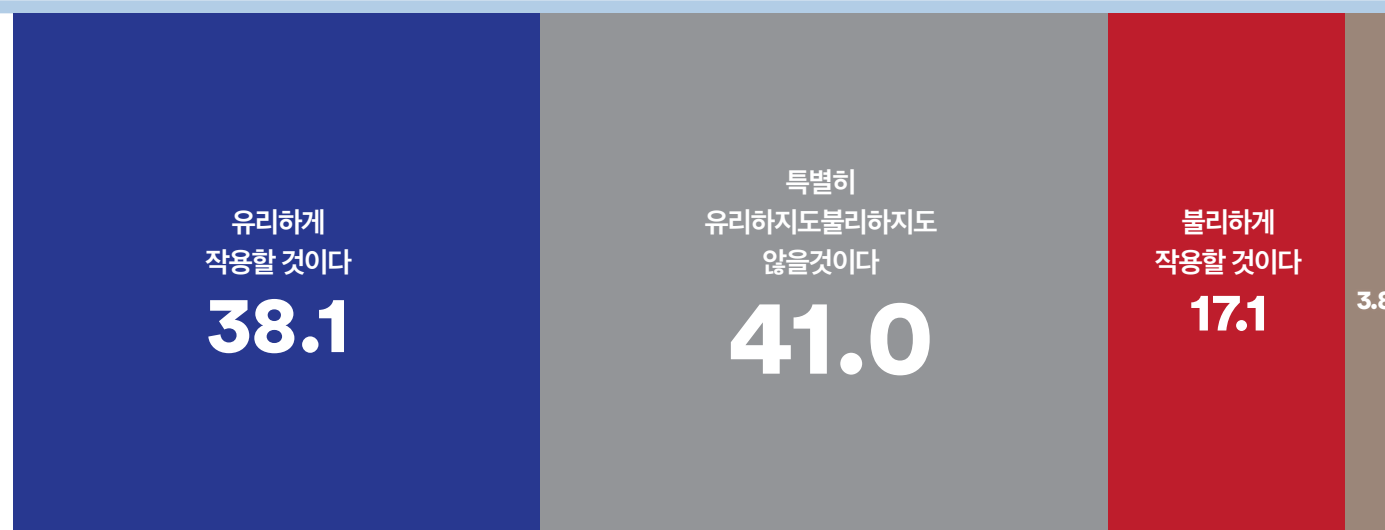
ARS

n=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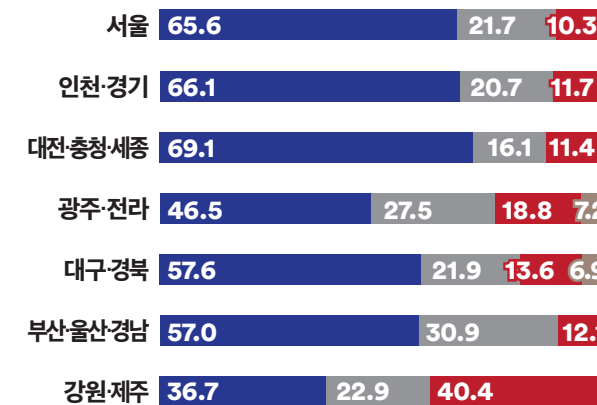
CATI

n=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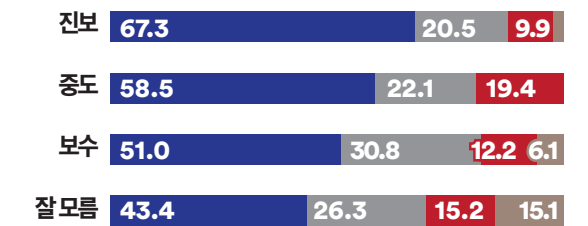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CATI n=421명/ ARS n=482명)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임
 ARS |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CATI | TK지역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경인·충청·호남·PK는 '유리'와 '유불리 없음'이 백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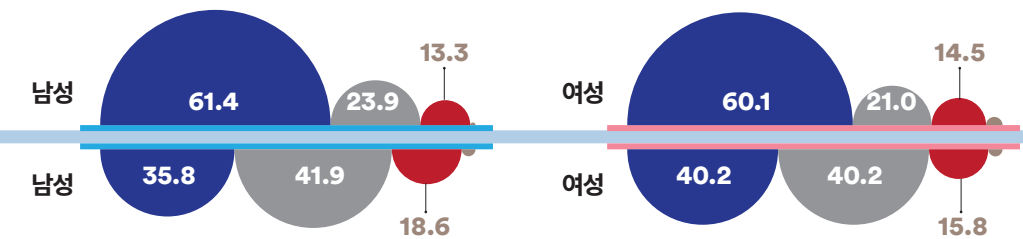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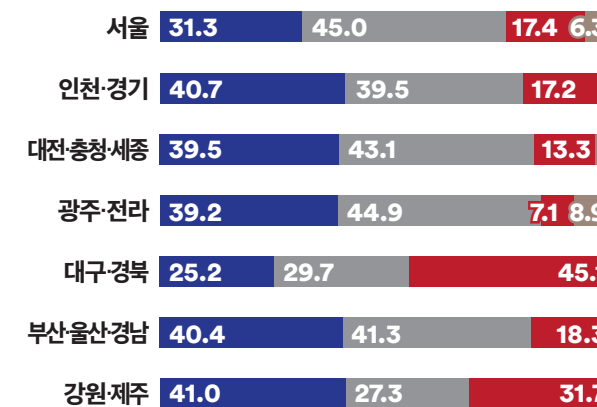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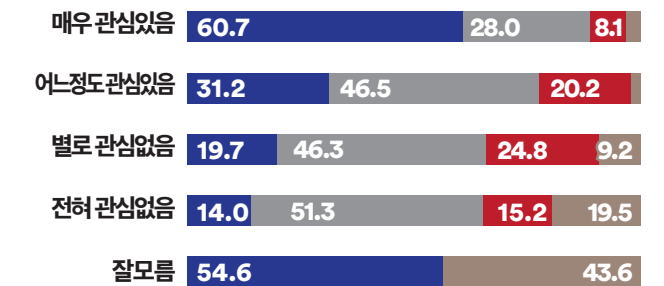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치관심도



유리할 것 유불리 없음 불리할 것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상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개혁 방향

Q. 더불어민주당 공천개혁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n=421명) 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지지층 10명 중 6명 이상은 '공천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과 40대 이상에서
'공천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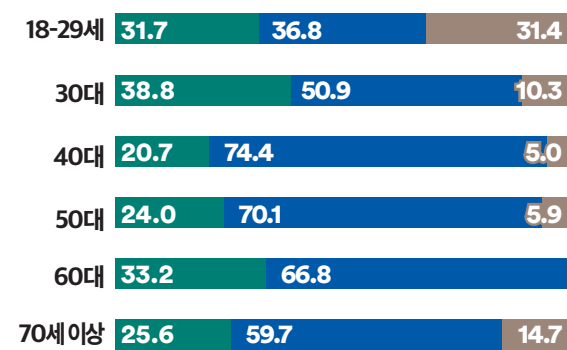
공천개혁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현역 및 비명계와
갈등 봉합의 길을 가야한다
27.7

현역과 비명계 반발과
갈등을 무릅쓰고
공천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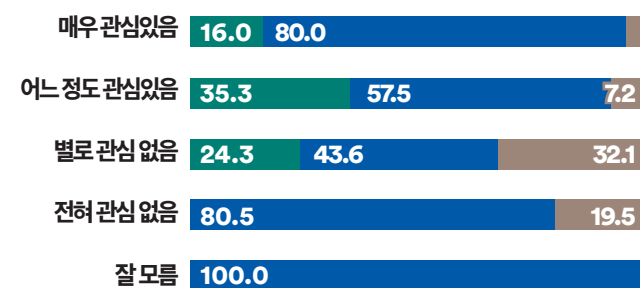
잘 모름
9.7

n=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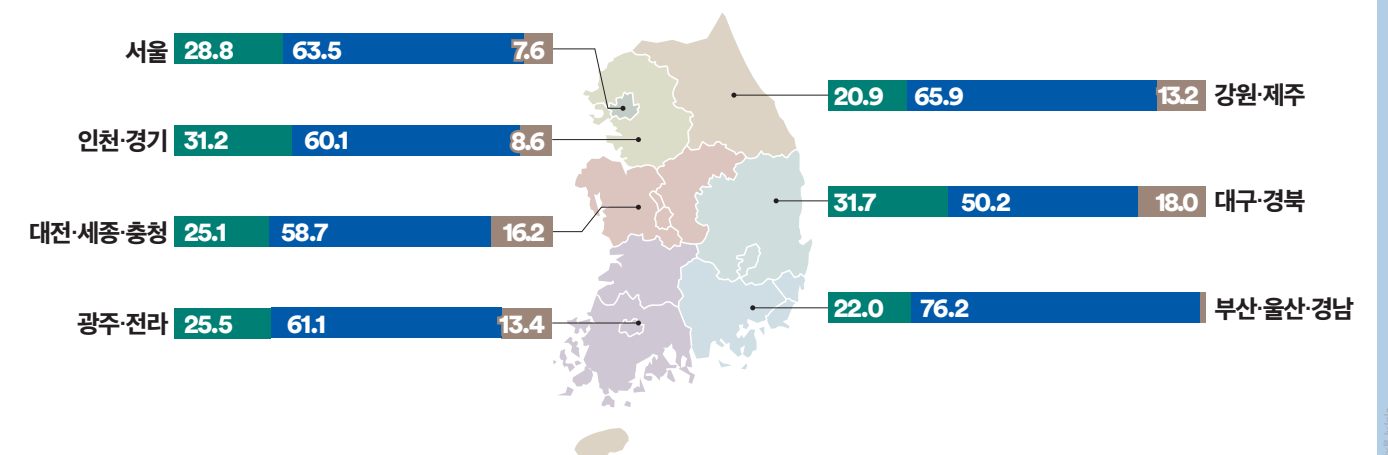
연령



정치관심도



권역



갈등 봉합의 길 공천 개혁의 길 잘 모름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정치·사회
현안**

- 정순신 임명 강행
- 대통령의 책임감
-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 김기현 투기 의혹
- 대통령의 식민사관
- 윤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
- 한일 군사협력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아들의 학폭 문제를 ‘시간 끌기 소송’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하루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와 법무부가 인지하고도 임명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없는 이유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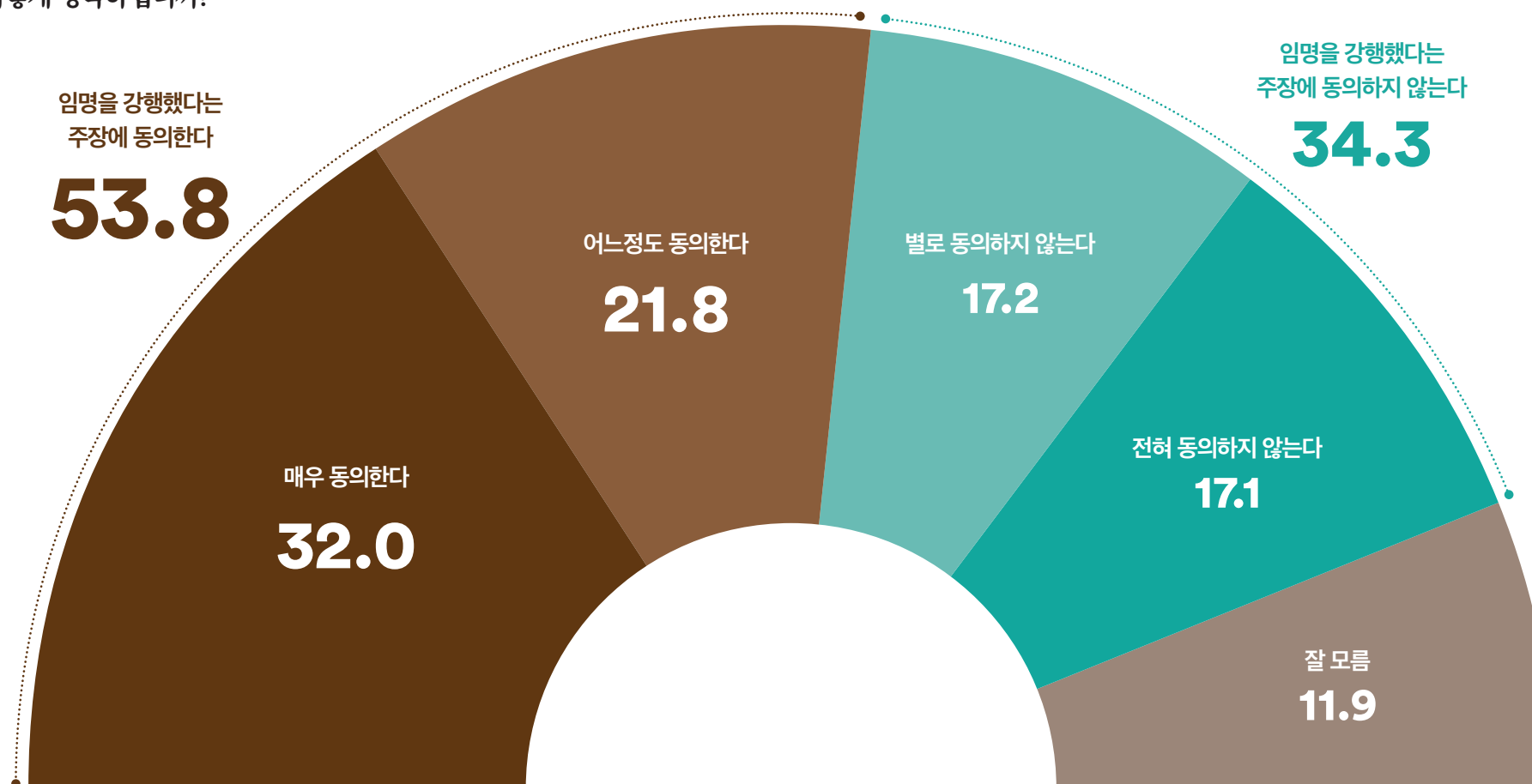
지난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윤 정부의 대일 외교 스탠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전망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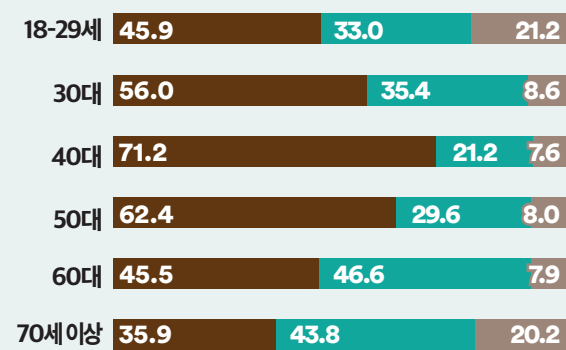
정순신 임명강행

Q.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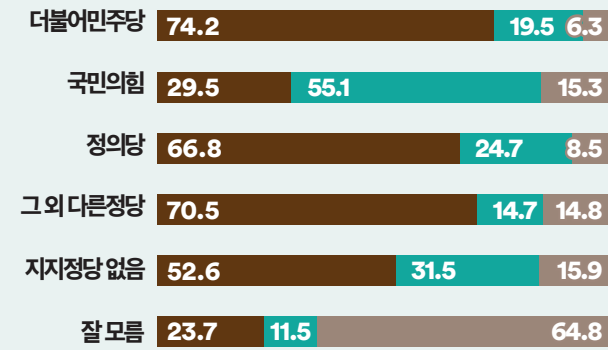


모든 권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으며, 서울, 경인, 충청, 호남권에서는 '동의' 응답 우세
남녀 모두 '동의' 응답이 우세
보수층 | 동의 37.4% / 비동의 49.4%
중도층 | 동의 58.8% / 비동의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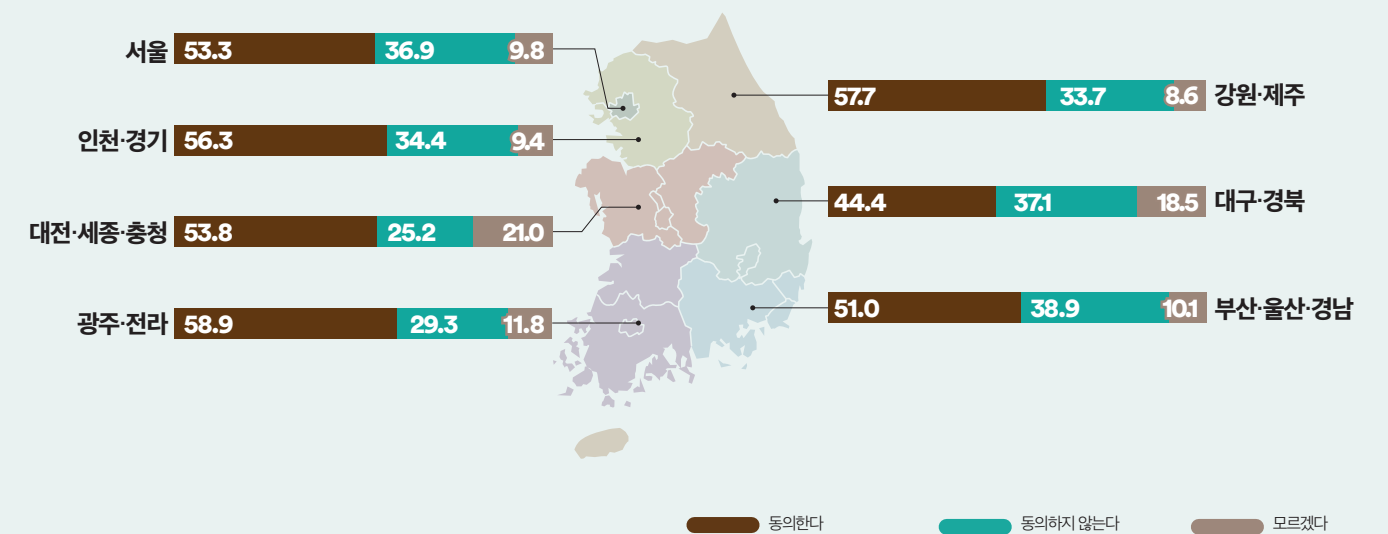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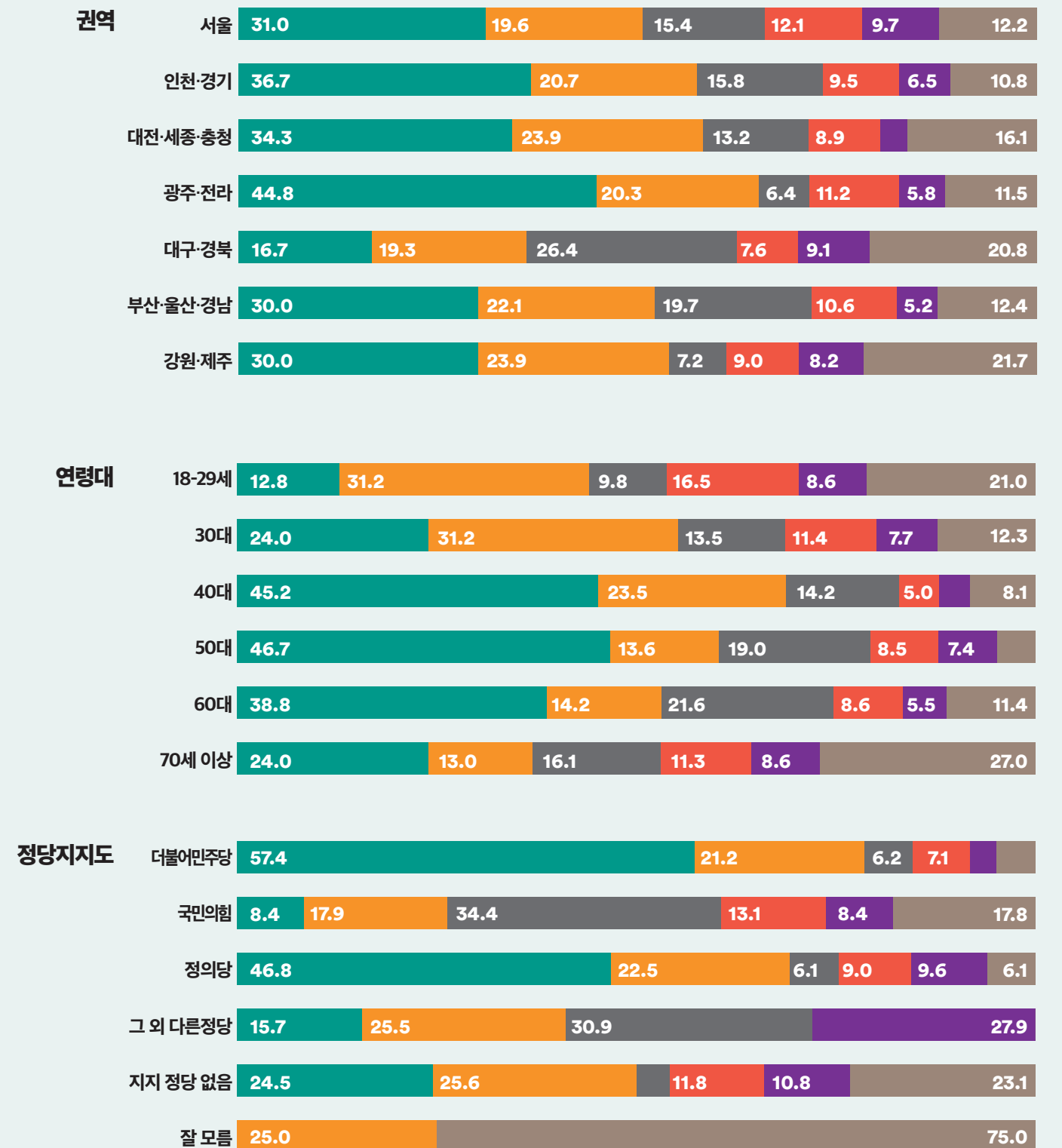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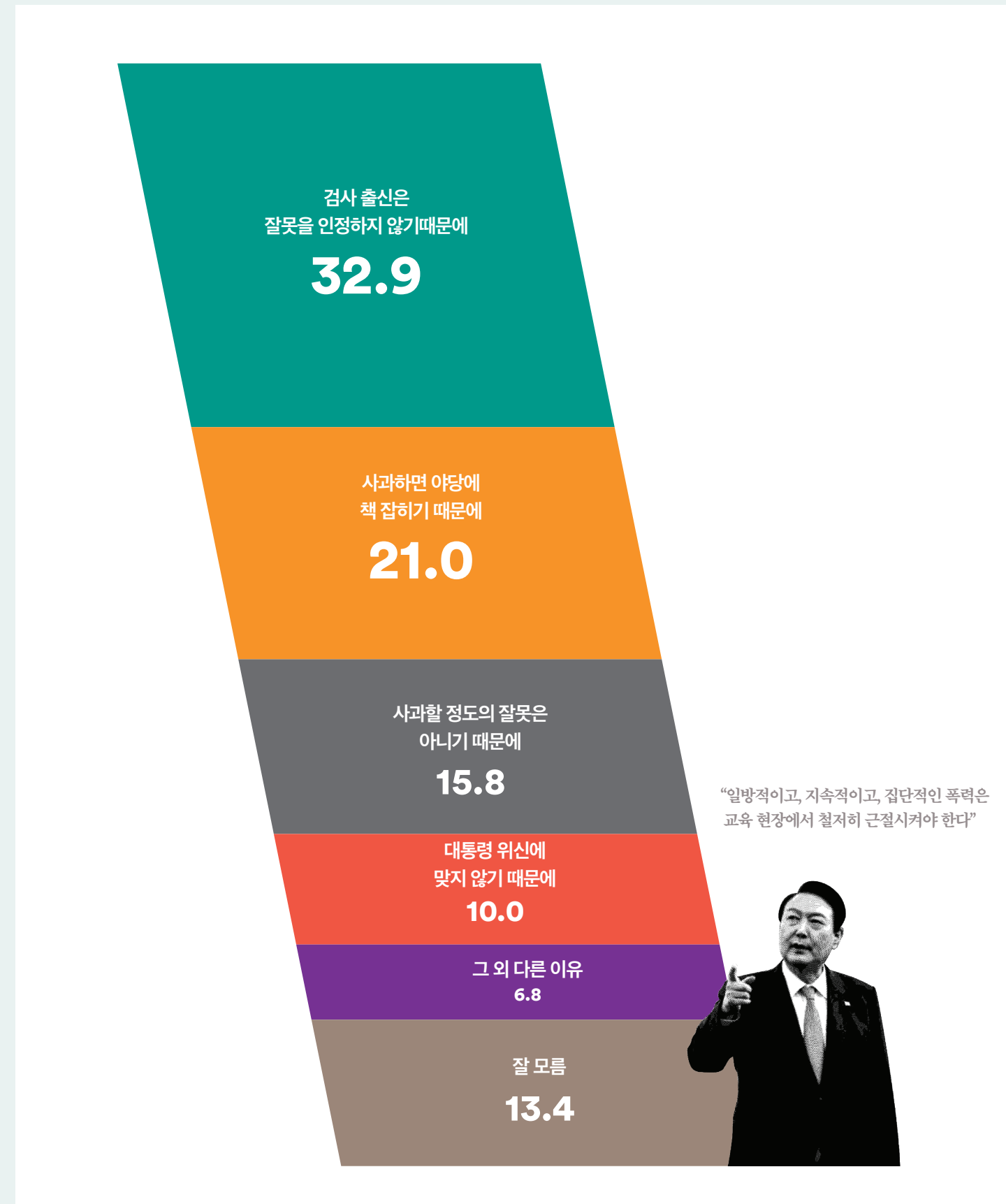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의 책임감

Q. 정순신 검증 실패에도 윤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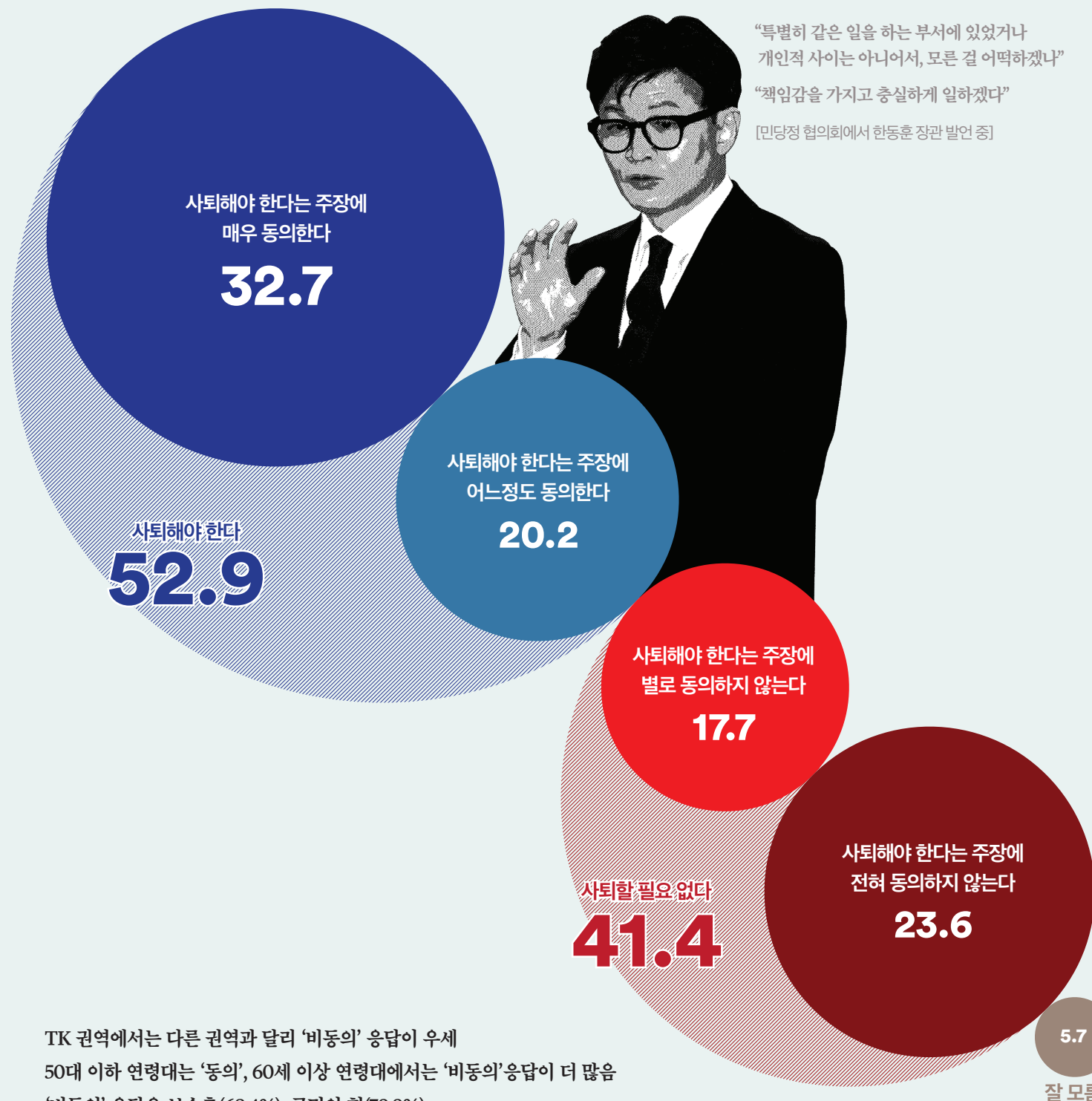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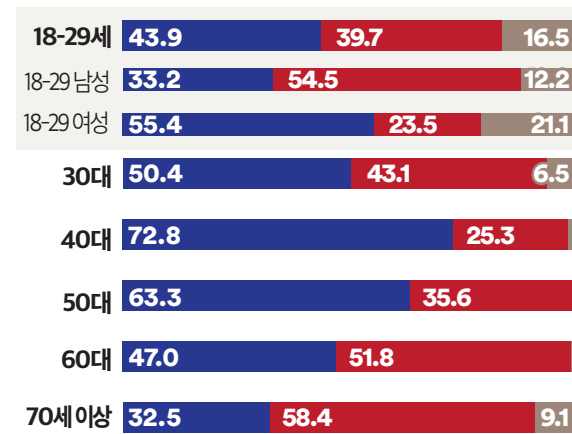
Q. 정순신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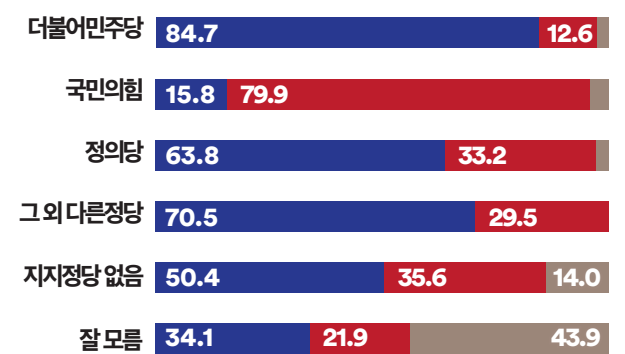


TK 권역에서는 다른 권역과 달리 ‘비동의’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 연령대는 ‘동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더 많음
‘비동의’ 응답은 보수층(68.4%), 국민의 힘(79.9%)
‘동의’ 응답은 무당층(50.4%), 진보층(82.9%), 중도층(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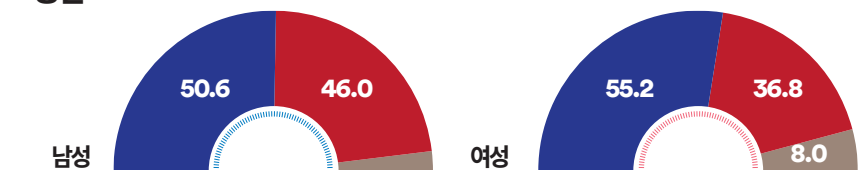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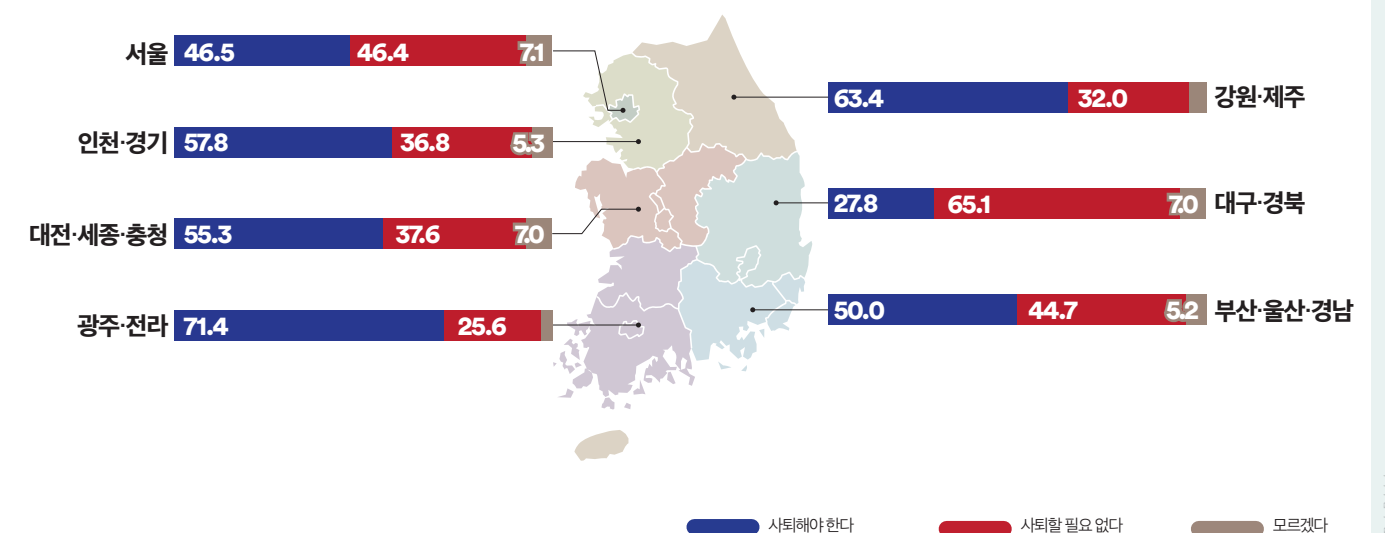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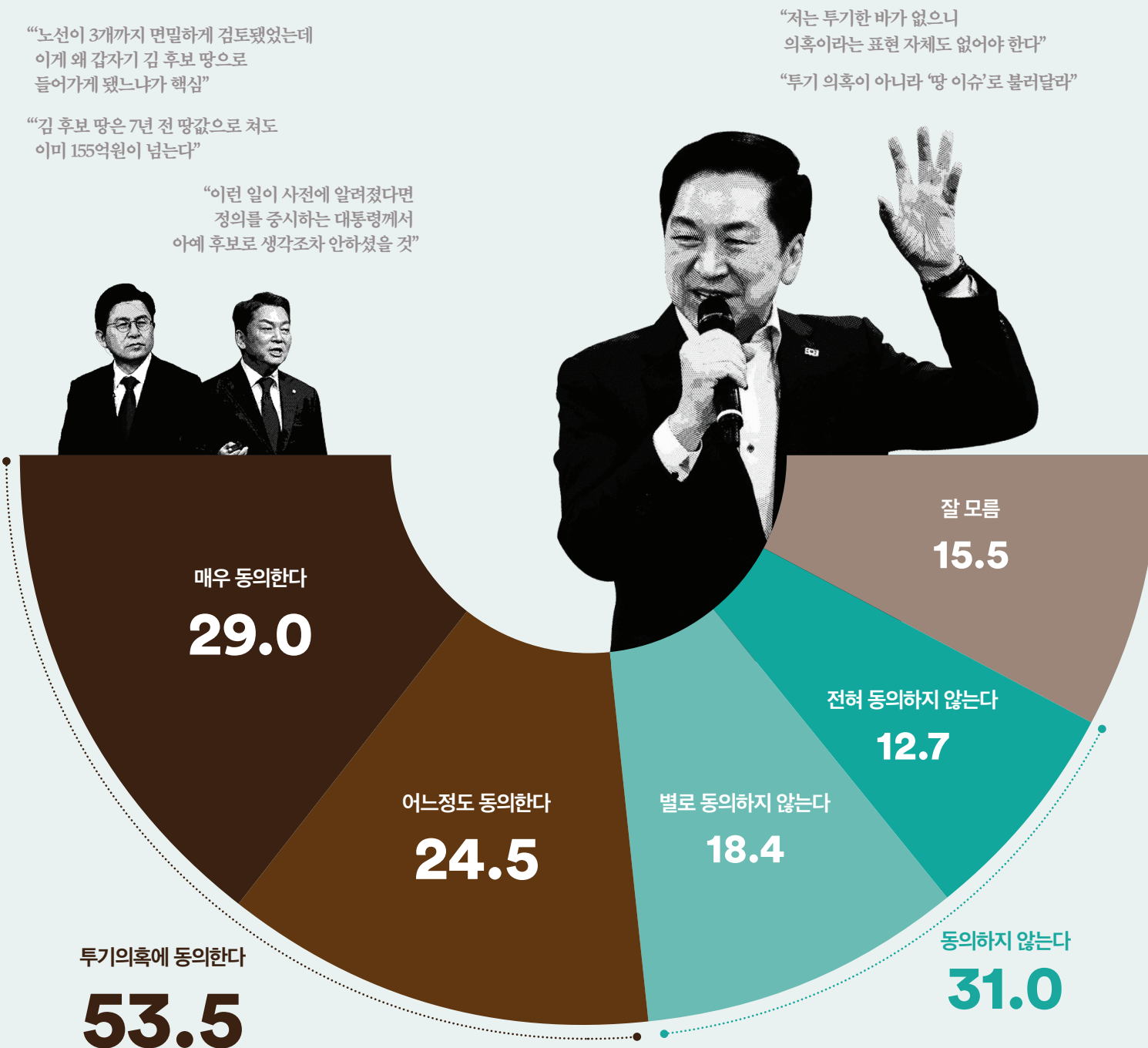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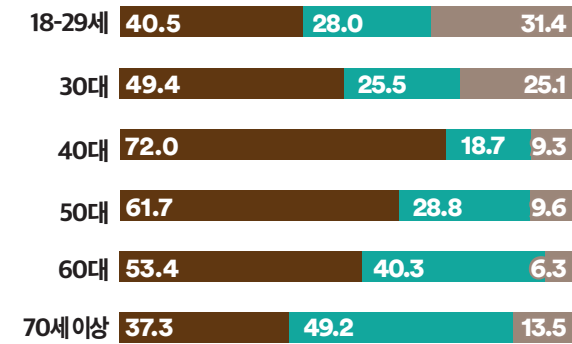
김기현 투기 의혹

Q.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 소유의 울산 지역 임야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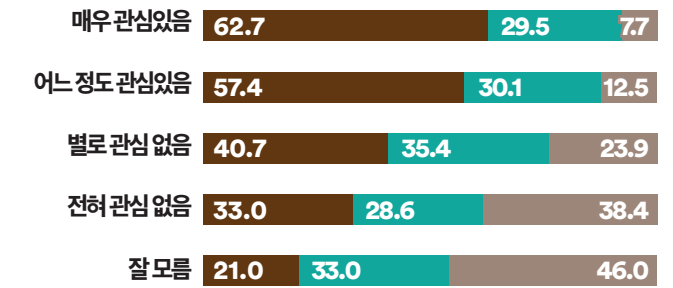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고 서울, 경인, 호남권과 울산이 포함된 PK권에서도 ‘동의’ 응답이 우세 60대 이하 연령대까지는 ‘동의’ 응답이 앞섰고, 특히 30대·40대·50대에서는 ‘동의’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응답자 10명중 3명은 ‘동의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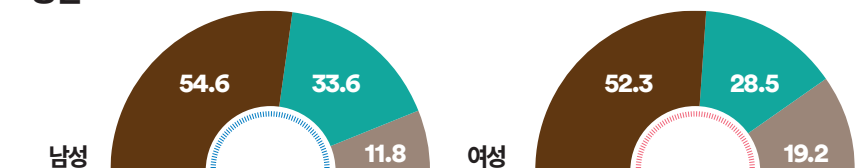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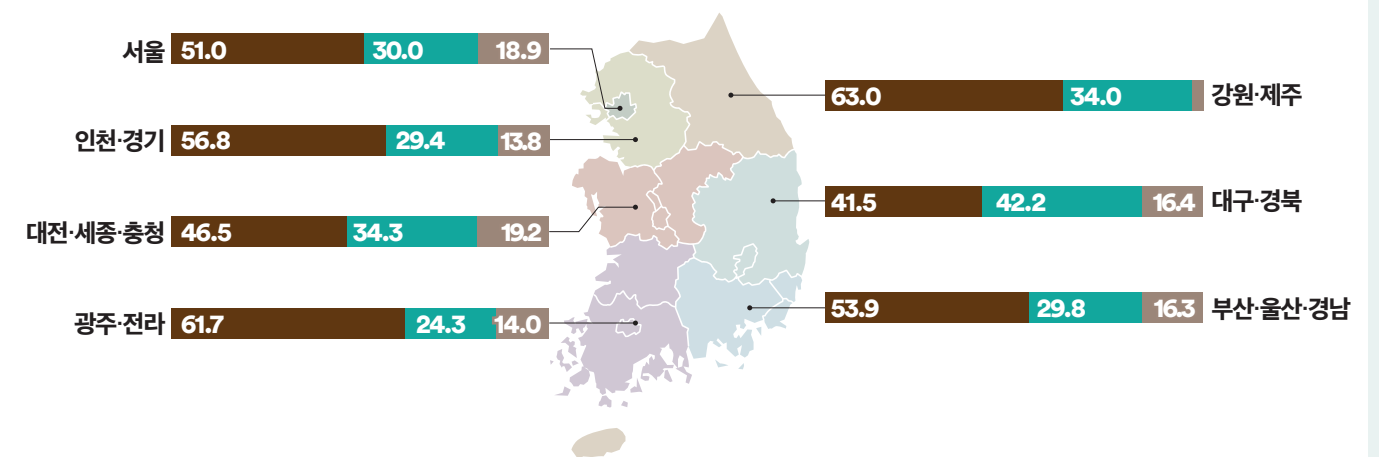
정치관심도



성별



권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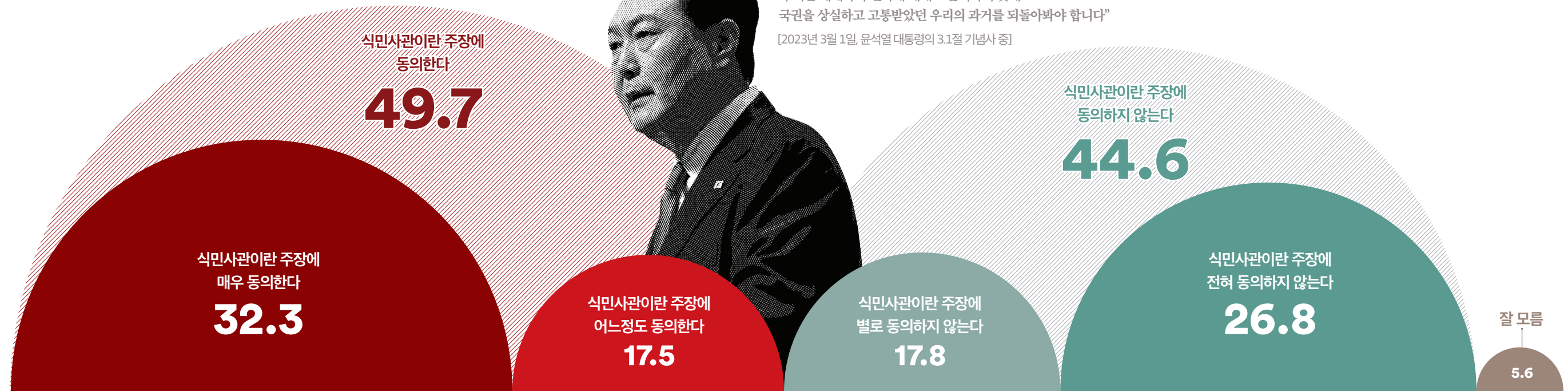
대통령의 식민사관

Q.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제의 강점이 조선 탓이란 대통령 인식은 식민사관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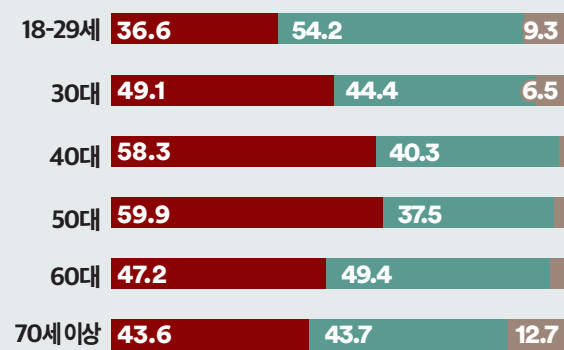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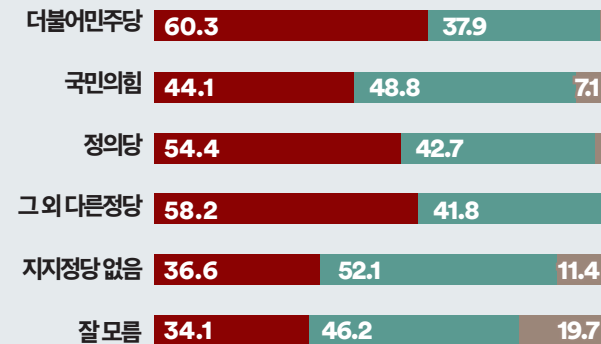
[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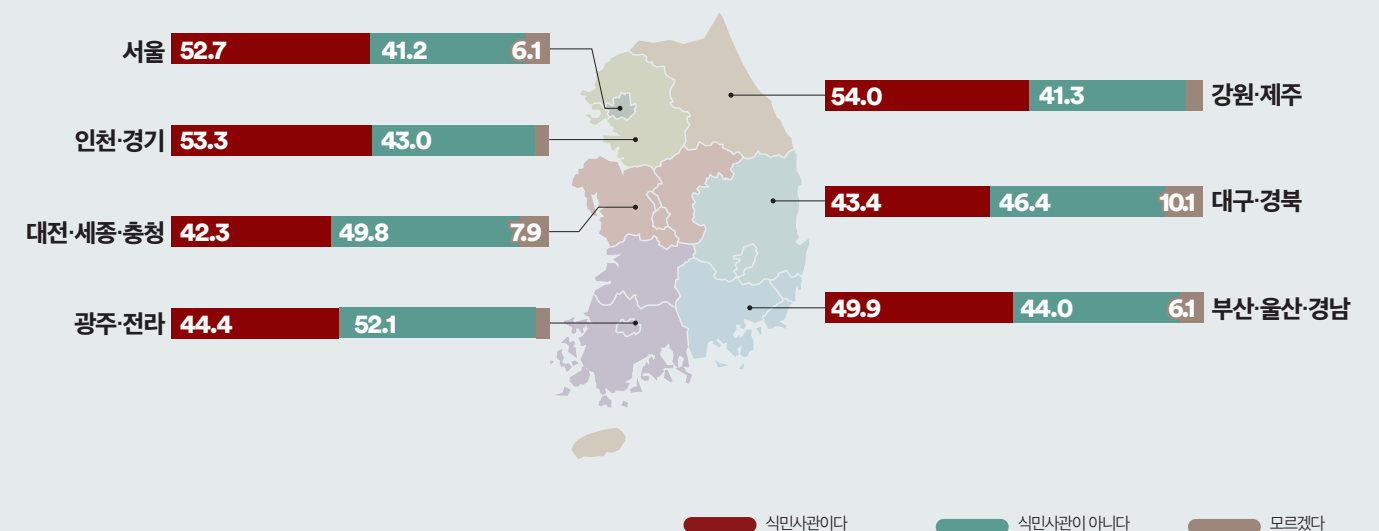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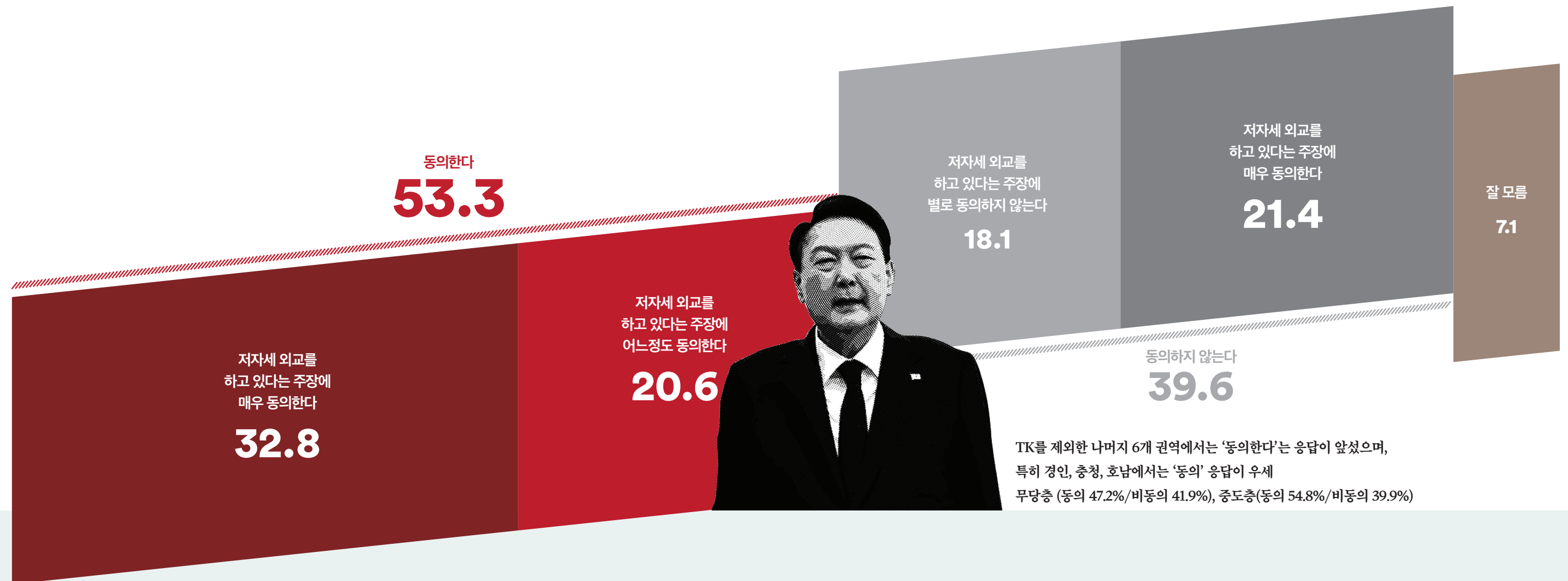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이 아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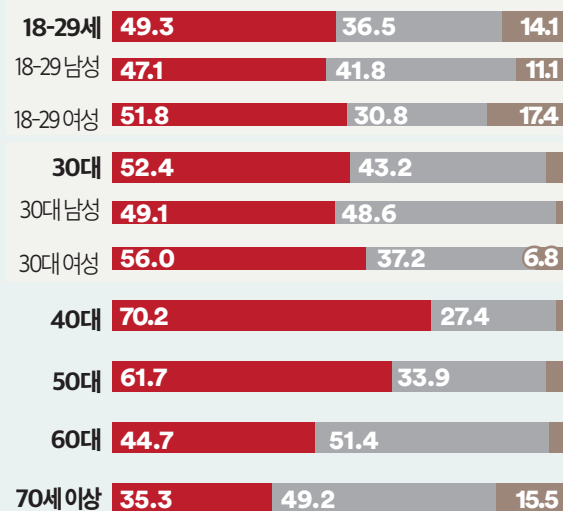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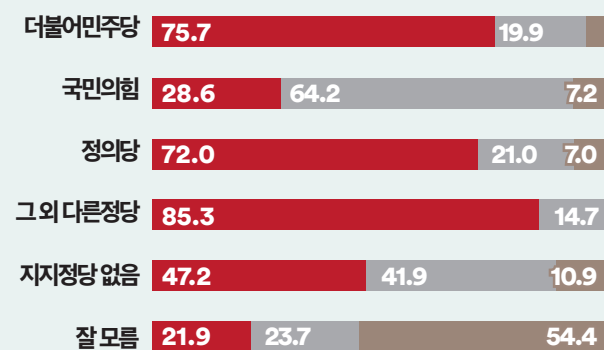
Q. 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G7 초청을 받기 위해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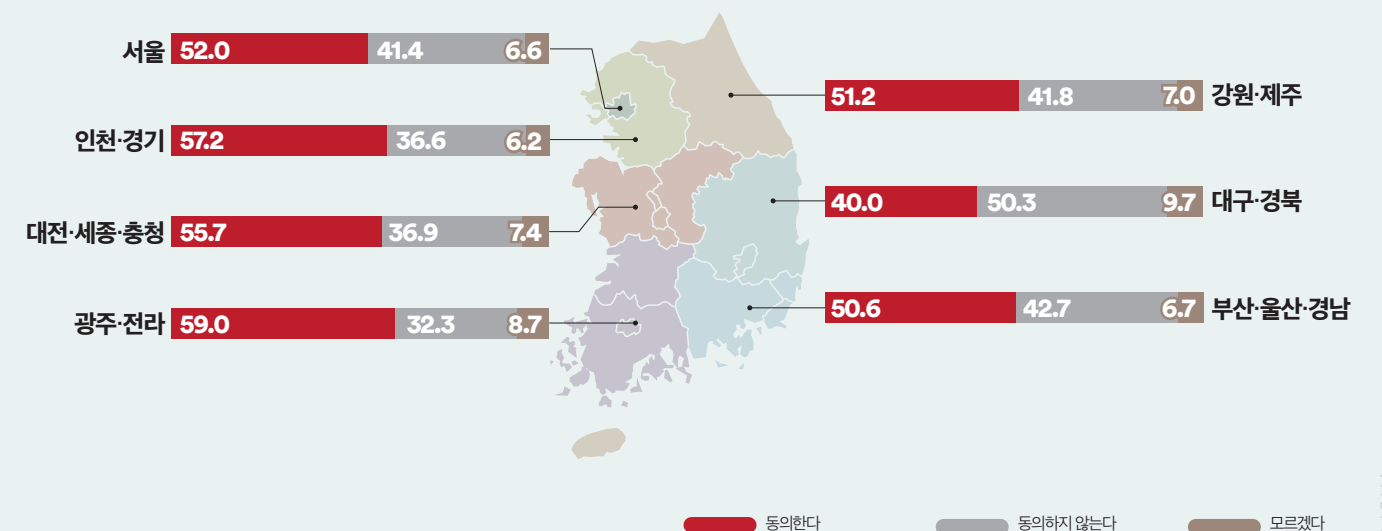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정치·사회 현안

한일 군사협력

Q. 지난 2월 독도 인근에서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로 한미일 해상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일 간 군사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은 '우려가 크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앞섬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 37.0%와 보수층 중 48.2%는 '우려가 크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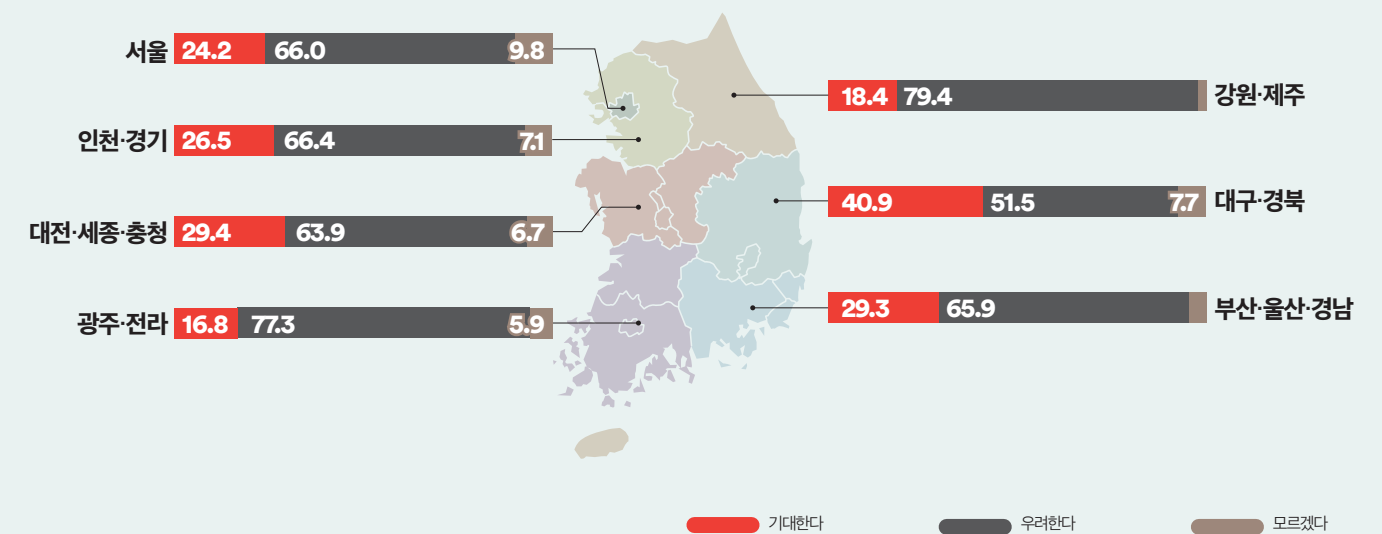
연령

18-29세	30.5	60.5	9.0
18-29 남성	43.9	46.4	9.7
18-29 여성	15.9	75.7	8.4
30대	28.0	65.5	6.5
30대 남성	40.7	56.9	
30대 여성	14.0	74.9	11.1
40대	13.6	81.4	5.1
50대	24.2	73.6	
60대	31.9	62.3	5.8
70세 이상	36.9	47.5	15.6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5	88.0	
국민의힘	55.6	37.0	7.4
정의당	88.2		11.8
그 외 다른정당	14.7	59.1	26.2
지지정당 없음	22.0	68.8	9.2
잘 모름	10.4	59.4	30.1

권역





여론조사꽃 제29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REPORT #202303_02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